

# 제7장 문화재 · 고적

##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

### 1. 국보(國寶)

#### 1) 국보 제264호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

- 지정일 : 1991. 3. 15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1 신광면사무소
- 시 대 : 신라
- 소유자 : 국유
- 관리자 : 포항시

이 비(碑)는 경북 영일군 신광면 냉수리에 사는 마을주민이 밭갈이 도중 발견하여 1989년 4월 문화재청(당시 문화재관리국)에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 된 신라고비(新羅古碑)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라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재산분배를 확인하는 증명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형태는 네모난 자연석으로 밑 부분이 넓고 위가 줄어드는 모습이며, 앞면과 뒷면, 그리고 윗면의 3면에 글자를 새겼다.

고비(古碑)는 고르지 못한 네모꼴의 화강암 자연석 앞·뒤·위 3면에 새긴 삼면비(三面碑)로서 앞면은 글씨를 새기기 위해 다듬었으나 뒷면과 윗면은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글씨를 새겼다. 따라서 매행별 글자의 수와 간격,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데 앞면에는 12행 152자, 뒷면에는 7행 59자, 윗면에는 5행 20자 등 총 231자가 새겨졌으며 하단이 넓고 상단의 폭이 축소되는 형태로 앞면과 뒷면은 가로 65cm 내외, 세로 44~69cm 내외이며 윗면은 가로 66cm 내외, 세로 27~30cm 내외이다.

비(碑)에는 “신라의 사부지왕(斯夫智王, 실성왕?)· 내지왕(乃智王, 내물왕) 두 왕이 진이마촌(珍而麻村, 현재 돌막골로 불리고 있음)의 절거리(節居利)에게 재산 취득을 인정하는 교(敎)를 내렸다.

계미년(癸未年, 503년?) 9월 25일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 지증왕?) 등 일곱 사람의 각부대표[칠왕(七王) 사훼부(沙喙部)의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 사덕지아우

지(斯德智阿于支)·자숙지거벌우지(子宿智居伐于支), 휘부(喙部)의 이부지일우지(이夫智壹于支)·지심지거벌우지(只心智居伐于支), 본피부(本彼部)의 두복지우지(頭腹智于支), 사피부(斯彼部)의 모사지우지(暮斯支于支)]가 모여 중신회의를 개최하고 전대의 두 왕이 절거리에게 재물을 얻도록 왕교(王敎)를 내린 것을 의논하여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교시(別敎)를 통해 절거리가 먼저 죽으면 그의 재산은 아우인 아사노(弟兒斯奴) 혹은 아우의 아들인 사노(斯奴)가 상속하게 되며 말추(末鄒)와 사신지(斯申支) 이 두 사람은 후에 재물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만약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게는 중죄에 처할 것이다.

전사인(典事人) 7명은 일을 마치고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물어 이 사실을 기록한다. 촌주 두 사람[유지우지(與支于支)·수지일금지(須支壹今智)]이 이해의 일을 마치고 그 사실을 적는다” 라는 내용의 글을 새겼는데 비문에 나오는 “계미(癸未)” 라는 우지(于支)와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 등 각종 신분명칭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관련기록과 연관 지어 볼 때 이 비의 건립연대는 신라 지증왕 4년인 503년으로 추정되거나 학자들 간의 이견(눌지왕 27년인 443년 설)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고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산권 분쟁을 각부의 귀족들이 참여하는 중신회의에서 합의하여 처리한 내용으로 볼 때 법흥왕이나 진흥왕대처럼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 신라왕권의 한계를 알려주고 있으며 당시 화백제도의 구성 및 운영, 6부 체제로 확립되어 가던 정치제도,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묻고 제천의식을 행하던 풍속제도의 실상 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문의 성격, 형태, 글자의 새김이 신라가 동북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생기는 토지와 재산권 분쟁에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는 울진봉평신라비와 매우 유사하며 일반적인 비(碑)라기 보다는 재산분배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2. 보물

### 1) 보물 제1-1호 포항보경사서운암동종(浦項寶鏡寺瑞雲庵銅鐘)

- 지정일 : 2000. 2. 15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조선 숙종 때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인 사인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시대 종이다. 사인비구는 18세기 뛰어난 승려이자 장인으로 전통적인 신라 종의 제조기법에 독창성을 합친 종을 만들었다. 현재 그의 작품 8구가 서로 다른 특징

을 보이며 전해지고 있다.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인비구(思印比丘)의 종 가운데 조성년대(造成年代)가 가장 앞선 것으로, 비록 종의 규모는 작지만 사인비구의 초기 종 연구에 사료적 가치가 있다.

등근 고리모양의 종뉴(鍾紐)를 갖추었으며, 입상대(立上帶)에 이어 마련된 상대(上帶)를 비롯하여 네모꼴 유곽(乳廓)과 하대(下帶)가 잘 남아있다.

상대는 연화보상화문을 정교하게 돋을새김 하였으며, 하대는 다소 간략한 형태의 당초문(唐草文)을 장식하였다.

입상대는 모두 40개의 세운 연꽃잎 모양으로 각 앞마다 인물상(人物像)을 안치하였으며, 유곽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9개의 유두 대신 5개의 유두를 설치하였다. 유곽 사이의 각 여백에도 보살상이나 위패(位牌) 모양이 아닌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을 배치함으로써 다른 종들과는 달리 ‘진언’을 문양화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 2) 보물 제252호 보경사원진국사비(寶鏡寺圓眞國師碑)

- 지정일 : 1963. 1. 21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보경사에 있는 고려 중기의 승려 원진국사의 탑비이다. 원진국사(1171~1221)는 속성(俗姓)은 신씨(申氏)이며 이름은 휘(諱)이다. 13세에 승려가 되어 왕의 부름으로 보경사의 주지가 되었다. 51세로 입적하자 고종은 그를 국사(國師)로 예우하고, 시호를 ‘원진’이라 내리었다.

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운 간결한 모습으로, 비몸 윗부분의 양 끝을 접듯이 잘라 놓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유행하던 양식이다.

넓은 바닥돌과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거북받침돌은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를 하고 있다.

등에는 6각형의 무늬마다 ‘왕(王)’자를 질서정연하게 새겨놓았으며, 등 중앙에는 연꽃을 둘러 새긴 네모난 받침대를 조각하여 비몸을 끼워두게 하였다. 비몸의 둘레에는 덩굴무늬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고려 중기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비문에는 원진국사의 생애와 행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글은 당시의 문신이었던 이공로가 지었고, 김효인이 글씨를 썼다.

비문에 의하면, 비가 완성된 것은 고종 11년(1224)으로 원진이 입적한 지 3년 후의 일이다.

**3) 보물 제430호 보경사 원진국사 부도( 圓鎮國師 浮屠)**

- 지정일 : 1965. 9. 1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01-1 보경사

보경사 뒷산의 중턱에 서 있는 묘탑으로, 원진국사의 사리를 모셔두고 있다. 원진국사 신승형(申承迥)은 고려중기의 승려로, 51세에 입적하자 고종이 그를 국사로 추증하고 ‘원진’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기단부(基壇部)의 아래·중간·윗받침돌 가운데 3단으로 이루어진 8각 아래받침돌은 맨 윗단에만 연꽃조각이 둘러져 있다.

중간받침돌은 8각의 모서리마다 기둥모양의 조각을 새겨두었다. 윗 받침돌에는 솟은 연꽃무늬를 새겼는데, 꽃잎의 끝이 뾰족하고 중앙의 세로선이 불룩하게 돌출되어 당시로서는 드문 모습이다.

탑신(塔身)은 몸돌이 매우 높아 마치 돌기둥처럼 보이며, 한 면에만 자물쇠모양을 새겨놓았다. 지붕돌은 낙수면의 경사가 느리고, 모서리에서 뻗어나가는 곡선의 끝마다 꽃장식이 조그맣게 솟아있다. 처마의 곡선은 양쪽 끝에서 가볍게 들려있고, 추녀는 두터워 보인다.

지붕돌 위의 머리장식으로는 활짝 핀 연꽃받침 위에 복발(覆鉢, 얹어놓은 그릇모양의 장식)을 올리고, 연꽃조각이 새겨진 돌을 놓은 다음, 보주(寶珠, 연꽃봉오리 모양의 장식)를 얹어서 마무리 하였는데 보존이 잘되어 원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8각형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몸돌이 지나치게 길어 전체가 길쭉해 보이며 너비도 좁아 안정감이 적다. 각 부분의 조각에도 생략이 많아 단순한 감이 들고 밋밋하다.

**4) 보물 제957호 탁영거문고(濯纓琴)**

- 지정일 : 1988. 6. 16
- 소재지 : 경북 포항 (국립대구박물관 보관)

조선 초기의 학자인 탁영 김일손이 사용하던 거문고로 크기는 길이 160cm, 너비 19cm, 높이 10cm이다. 김일손(金駟孫, 1464년~1498년 7월)은 조선 성종·연산군 때의 문신이며 학자, 사관이다. 본관은 김해, 자는 계운(季雲), 호는 탁영(濯纓)이다.

성종 때 춘추관의 사관(史官)으로 전라도관찰사 이극돈(李克墩)의 비행을 직필하고, 그 뒤 헌납(獻納) 때 이극돈과 성준(成俊)이 새로 봉당의 분쟁을 일으킨다고 상소하여 이극돈의 원한을 샀다.

1498년에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앞서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史草)에 실은 것이 이극돈을 통하여 연산군에게 알려져 사형에 처해졌고, 다른 많은 사류(士類)도 화(禍)를 입었다.

거문고 중앙부분에 탁영금(濯纓琴)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학 그림이 거문고 아래 쪽에 그려져 있다. 거문고의 머리 부분인 용두(龍頭)와 줄을 엮어 고정시키는 운족(雲足)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끝부분인 봉미(鳳尾), 운족과 같이 줄을 고정시키는 패 등 일부 부품은 새로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옛 선비들의 애완품으로 사용된 악기로서는, 유일하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 5) 보물 제1280호 오어사 동종(吾魚寺 銅鍾)

•지정일 : 1998. 6. 29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향사리 34 오어사

고려 고종3년(1216)에 주조된 신라종 형식의 전통이 엿보이는 동종이다. 1995년 11월 6일 오어지(吾魚池) 상류 준설작업 중 굴삭기 기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신라범종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 용뉴와 음관 및 상·하대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당좌와 비천상·종기(鐘記)의 위치도 정연하다.

몸통부분의 위와 아래에는 횡선의 띠를 두르고, 같은 무늬를 새겨 넣었다. 3분의 1 되는 곳 위쪽으로는 사각형의 유곽을 만들고, 그 안에 9개의 돌출된 모양의 유두가 있다. 종을 치는 곳인 당좌를 따로 둔 것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 종 몸통의 문양을 보면 서로 마주보고 꽃방석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는 보살을 새겼고, 다른 두 면에는 범자가 들어간 위패형 명문으로 장식하였다.

신라 종 형식의 전통이 엿보이는 고려형식 종으로, 용뉴(龍紐)와 음관 및 상·하대를 갖추고 있으며 상대 위로 입화식(立花飾) 연판문이 돌려져 있다. 상대에 붙은 유곽 속의 유두(乳頭)는 3×3배열이나 3곳에 5개 결실되었으며, 종신(鐘身)의 마주한 두면은 무릎 꿇은 합장보살 1구가 긴 천의(天衣)자락을 위로 휘날리며 꽃방석형좌에 앉은 형식이 각각 배치되고, 다른 쪽 두면은 범자문이 들어간 위패(位牌)형 명문장식 밑으로 연화문 당좌(撞座)가 놓인 장식조(裝飾組)가 각각 배치되었다.

용뉴의 머리 쪽에 해당하는 종신부분의 왼쪽 하부면에는 7행 82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동화사(桐華寺) 순성(淳誠)대사를 도감으로 하여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 300근의 종을 대장(大匠) 순광(順光)이 만들어 오어사에 달았으며, 그때가 정유4년 병자(貞祐四年 丙子), 고려 고종3년(1216년) 5월 19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곧 감독과 주종자 및 무게와 안치장소, 연대 등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적혀져 주목된다.

**6) 보물 제1609호 포항 보경사 괘불탱(浦項 寶鏡寺 掛佛幀)**

- 지정일 : 2009. 2. 23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622번지 보경사

보경사 괘불탱은 1708년(숙종 34)에 조성되었지만, 17년 뒤인 1725년(영조 원년)에 중수하였다. 화원은 의균(義均)·석민(碩敏)·성익(性益)·지봉(智朋)·체환(體環)·쾌민(快敏)·삼학(三學)인데, 모두 대구 팔공산 동화사와 파계사의 불화조성에 참여한 화사로 주로 경상도에서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괘불탱은 10m에 이르는 대형의 화면에 연꽃줄기를 든 보살형의 여래만을 단독으로 그렸는데, 의균의 작품 중에서 최대의 역작이다. 대형화폭에 단독 존상만을 그린 구성은 매우 단순하지만 홍색과 녹색, 청색 계열의 색만을 이용해 조화와 대비를 훌륭하게 처리하였고, 여래가 입고 있는 가사의 조(條)에 금 바탕에 녹색으로 문양을 내는 장식이나 끝단의 세부문양 등 세부장식에도 소홀함이 없다.

보경사 괘불탱 같이 다섯 여래가 표현된 화려한 보관과 연꽃을 들고 있는 괘불도상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경상도지역에서 유행한 괘불형식으로 괘불도상의 계승을 연구하는 데 의미 있는 작품으로 생각된다.

**3. 사적(史蹟)**

**1) 사적 제386호 영일장기읍성(迎日長鬐邑城)**

- 지정일 : 1994. 3. 17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7-2 외

읍성이란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행정적인 기능을 함께 하는 성을 말한다. 고려 때 처음 이 성을 쌓았는데 동쪽으로 왜적을 막고 북쪽으로는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현종2년(1011) 당시에는 흙으로 성을 쌓았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돌로 성을 다시 쌓았다고 한다. 성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둘레가 1,440m이며 3개의 성문과 문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작은 성인 웅성, 성벽 바깥에 사각형 모양으로 덧붙여서 만든 치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4개의 우물과 2개의 연못인 음마지(飲馬池)가 있다. 동문의 웅성에는 ‘배일대(拜日臺)’라는 각자(刻字)가 새겨져 있다.

성 안쪽에는 교육기관이었던 장기향교와 관청이었던 동헌 터가 남아 있는데, 동헌은 현재 면사무소 안으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 읍성은 지방의 관아(官衙)와 민가의 취락지(聚落地)를 함께 둘러싸 싸은 성인데, 이 장기읍성은 산정(山頂)에 있으면서 읍치(邑治)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읍성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2) 사적 제493호 법광사지(法光寺址)

- 지정일 : 2008. 1. 30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967번지 일원

법광사는 신라 진평왕(재위 579~631)때 건립된 사찰이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으며, 현재의 건물들은 1952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법광사는 건물규모가 525칸이나 되는 큰 사찰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현재 법광사터에는 석가불사리탑, 연화석불좌대, 쌍두귀부, 당간지주와 조선 영조시대에 세운 사리탑중수비가 남아 있다. 연화석불좌대는 소실된 대웅전 석가불의 좌대로 추측되는데, 높이 1.1m, 직경 2.2m, 원경 0.5m이다.

이중 기단 위에 4층으로 된 석가불사리탑은 인도석가모니 진신사리 22립(粒)을 보관하고, 왕족의 혈통을 계승하여 삼국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이 탑을 건립하였다고 전하며 탑의 높이는 4.2m이다. 쌍두귀부는 너비 1.4m, 높이 1.8m이다. 법광사 북쪽 방향 150m 지점에는 신라 제26대 진평왕의 위패를 모신 송안전이 있다.

## 4. 천연기념물( )

### 1) 천연기념물 제371호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 지정일 : 1992. 12. 23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동해면 발산리 산13

발산리의 모감주나무·병아리꽃나무 군락지는 해안에 인접한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다. 모감주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가 굵으며 위쪽으로 가지가 퍼져 자라는 나무이다. 잎은 봄에 돋아 가을에 지고 노란꽃은 한여름에 피며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병아리꽃나무는 키가 작고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이다. 잎은 봄에 돋아 가을에 지고 꽃은 5월에 피며 열매는 9월에 익는다. 해안에 인접한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발산리의 모감주나무·병아리꽃나무 군락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모감주나무 군락지 중

크기와 면적, 개체수가 가장 크고 많은 곳이며, 병아리꽃나무와 함께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모감주나무는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세계적으로 희귀목이다. 열매는 세모꼴의 초롱같은 모양으로 10월에 익고 둥글고 검은색 윤기가 나는 단단한 종자가 3개 들어있다. 이 열매는 염주로도 사용한다. 하층식생으로 자라고 있는 병아리꽃은 봄에 피는 하얀 꽃이 색상이나 모양은 화려하지 않으나 4장의 꽃잎이 둥글게 핀 모습이 은은하고 청순한 아름다움을 준다.

## 2)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 지정일 : 2000. 4. 24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9-3번지 일원

주상절리는 암석이 규칙적으로 갈라져 기둥 모양을 이룬 것으로 지각변동·습곡작용·풍화작용·지표침식에 의해 압력의 변화가 생길 때 마그마가 지표 암석의 갈라진 틈을 뚫고 들어오면서 형성된 것이다.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는 그 발달 상태가 양호하고 절리의 방향이 특이해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높으며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포항의 주상절리는 그 형성시기가 신생대 제3기(약 200만 년 전)로서 국내 다른 지역의 주상절리의 형성시기가 신생대 제4기(약 30만 년 전)인 점을 감안할 때 특이성이 있으며, 또한 약 20m 수직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돌기둥의 모습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규모이다.

## 3) 천연기념물 제468호 포항 북송리 북천수

- 지정일 : 2006. 3. 28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477 외

포항 북송리 북천수는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의 2.5km 북천변을 따라 길게 선형으로 조성된 송림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흥해현지도」에도 북천수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북천수 조성유래에 대한 기록과 《조선의 임수》에 1938년 조사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예로부터 매우 유명한 숲이며, 현재에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숲 중 3번째로 긴 숲으로 알려져 있다.

북천수는 《한국지명총람》에 ‘조선 철종 때 흥해군수 이득강이 읍성과 흥해의 진산인 도음산의 맥을 보호하고 북천에 독이 없어 장마만 지면 수해가 나는 것을 보고 군민을 동원하여 북천 제방을 쌓고 4리에 뻗친 북천수를 조성하였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흥



해읍의 수해방지와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풍수상 도음산의 맥을 보호하여 흥해읍의 풍수형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으로 역사적 유래가 깊은 숲이다.

또한, 정월보름날 숲의 제당에서 동제를 지내고 이날 오후 3시 마을 앞산에서 산제를 지내며 전년도에 묻어둔 간수(소금물) 병에 담긴 간수의 상태를 보고 그 해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풍습이 있는 등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의 신앙적 대상이 되어 온 숲으로 문화·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마을 숲이다.

## 5. 중요민속자료

### 1) 중요민속자료 제187호 모포줄(牟浦줄)

- 지정일 : 1984. 4. 17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338

줄다리기 때 사용되는 줄이다. 모포리에서는 오랫동안 줄다리기 행사가 전해지는데 이때 사용되는 모포줄은 단순한 줄이 아닌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소중히 모셔지고 있다. 뇌성산 아래 골매기당에 있으며, 줄은 마을의 수호신이자 신체(神體)로서 할배신과 할매신을 의미한다.

마을에서는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매년 정초에 당제를 지내고, 음력 8월 16일에는 골매기당의 줄을 꺼내어 줄다리를 하는데 이기는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줄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벗짚에 칩냉쿨이나 피나무 껍질을 혼합하여 만드는데 이 모포줄의 경우 정확한 제작 시기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보통 줄다리기가 끝난 줄은 버려지거나 태워지는데 이곳 모포리에서는 신앙대상물로 모셔 두는게 특이하고 다양한 민간신앙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속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줄다리가 끝나면 줄을 골매기당에 다시 안치하는데 일정한 의식이 있다. 당안은 원래 마루로 되어 있는데 땅에서의 습기로 줄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암줄을 꼬아리를 틀 듯이 둥글고 넓게 말아서 놓고 그 위에 솔줄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둥글고 넓게 말아서 암줄위에 쌓아 놓는다. 암줄을 밑에 놓고 솥줄을 그 위에 놓는 것은 마치 교합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할배와 할매을 화합한채 골매기신이 되어 지내다가 일년에 한번 추석 다음날에 나아가서 줄다리에 참여하게 된다.

모포의 줄은 단순한 줄다리기의 줄이 아니라 골매기신체이기 때문에 동민들의 신앙의 대상이고 따라서 함부로 다루는 일이 없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

## 제2절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 1. 시도유형문화재( )

#### 1) 시도유형문화재 제203호(경북) 보경사 오층석탑(寶鏡寺五層石塔)

- 지정일 : 1985. 10. 15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경내에 있는 석탑으로, 1층 기단(基壇)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이다. 기단의 네 면과 탑신부의 각 층 몸돌에는 기둥모양을 조각하였다. 지붕돌은 밑면에 3단의 받침을 두었고, 네 귀퉁이는 약간 들려있다.

꼭대기에는 노반(露盤, 머리장식 받침)과 복발(覆鉢, 얹어놓은 그릇모양의 장식)이 남아 머리장식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높고 날렵한 느낌을 준다.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지붕돌받침이 3단으로 줄어드는 등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명 ‘금당탑(金堂塔)’이라고도 부르는데, 『보경사금당탑기(寶鏡寺金堂塔記)』에는 도인(道人), 각인(覺人), 문원(文遠)이 고려 현종14년(1023) 3월에 이 탑을 세웠다고 적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양식(樣式)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 2) 시도유형문화재 제243호(경북) 용계정(龍溪亭)

- 지정일 : 1989. 5. 29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0

조선 명종 1년(1546)에 세워진 건물로 임진왜란 당시 북평사를 지낸 농포 정문부 선생의 별장이다. 숙종 12년(1686)에 다시 크게 지었다. 정조(재위 1776~1800) 이후에는 세덕사의 강당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의 화를 면하기 위해 밤새도록 담을 쌓아 세덕사만 철폐되었다고 한다.

앞면 5칸·옆면 2칸으로 지붕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 건물 앞쪽에는 기이하게 생긴 절벽이 있으며, 수백 년 된 은행나무, 향나무, 백일홍 등이 용계정을 둘러싸고 있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 3) 시도유형문화재 제249호(경북) 영일칠포리암각화군(迎日七浦里岩刻畵群)

- 지정일 : 1990. 8. 7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201 외

암각화란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나 동굴벽에 기호나 물건, 동물 등의 그림을 새겨 놓은 것을 말하는데, 주로 농사의 풍요와 생산을 기원하던 주술행위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이 암각화는 칠포리 해수욕장 서쪽의 곤륜산 계곡 옆에 특 불거져 나온 바위면에 새긴 그림이다. 그림을 새긴 바위는 모두 세 군데인데, 원위치에 하나, 거기서 6m 떨어진 계곡에 하나, 그리고 20m 떨어진 곳에 또 하나가 있다.

원 위치에 있는 암각화는 돌출부 앞쪽을 거칠게 쪼아서 평탄한 면을 만든 후 서쪽 면 전체에 6개의 같은 모양의 그림을 짝 차게 새겨 넣었다.

계곡에 떨어진 바위는 원위치 있던 것이 갈라져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서쪽면에 2개의 같은 모양의 그림이 보인다. 두 곳 모두 오랜 세월 탓에 그림이 많이 닳아 있다. 20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은 작고 미완성된 상태이다.

쪼아 파는 방법을 사용하여 선으로 그림을 새겼는데, 가운데가 좁고 위아래가 벌어지는 실패 모양의 좌우에 4~5개의 굽은 선으로 위아래를 연결하고 그 사이 구간마다 알구멍<성혈(性穴)>을 새겨두었다.

### 4) 시도유형문화재 제254호(경북) 보경사적광전(寶鏡寺寂光殿)

- 지정일 : 1990. 8. 7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는 신라 진평왕 25년(603)에 지명법사가 세웠다고 전하는 절이다. 그 중 비로자나삼존불을 모신 적광전은 조선 숙종 3년(1677)에 고쳐 지은 것으로 그 뒤로도 몇 차례 수리를 한 건물이다.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지붕의 옆모습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기둥 위에서 지붕을 받치는 공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계 양식의 건물이며 천장은 뼈대가 훤히 보이는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기단(基壇)은 외벌대로 아주 낮게 조성하였는데 기단상면(基壇床面)에는 전을 깔고 원좌(圓座)가 있는 방형(方型)의 주초를 놓았다.

주초위에는 원주(圓柱)를 세웠는데 우주(隅柱)의 안솔림과 귀 솟음이 뚜렷하다. 방 밑에는 쇠시리안 화강석으로 고막이벽을 대신 막았다. 전면어칸의 하방 양쪽에는 동물 형상을 한 둔테목을 설치하였다.

**5) 시도유형문화재 제290호(경북) 상달암(上達菴)**

- 지정일 : 1995. 12. 1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429

조선 세조(재위 1455~1468) 때의 문신 양민공 손소(1443~1484)의 무덤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다. 건축연대는 건물을 보수할 때 남긴 기록과 남아있는 건축 세부양식으로 판단할 때 1500년대를 전후하여 아들인 우재 손중돈(1463~1529)에 의하여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의 안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는 ㄱ자형의 건물이 있고 서쪽으로는 一자형으로 놓인 건물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문채가 위치하여 전체적으로는 트여있는 ㄹ자형 배치구조를 보이고 있다.

**6) 시도유형문화재 제302호(경북) 남성재(南城齋)**

- 지정일 : 1998. 4. 13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

남성재(南成齋)는 고려(高麗) 의종(毅宗) 때 한림학사(翰林學士) 추밀원지진사(樞密院知秦事)를 지낸 영일정씨(迎日鄭氏)의 시조(始祖)인 형양공(滎陽公) 정습명(鄭襲明) (?~1151)의 묘단하(墓壇下) 재숙지소(齋宿之所)이다.

조선 경종2년(1722)에 읍성의 남쪽 구석에 후손들이 처음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으나, 영조18년(1742)에 읍의 이전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에 묘단을 새로이 쌓고 돌상과 비석을 세웠다.

**7) 시도유형문화재 제364호(경북) 김언신관련고문서(金言慎關聯古文書)**

- 지정일 : 2005. 5. 23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88-6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고문서는 자료의 희소성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김언신 관련 고문서 8점은 여타 고문서와 다르게 그 형식이 단조롭고 자료적 가치는 크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모두 임진왜란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사가(私家) 소장 고문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8) 시도유형문화재 제367호(경북) 보경사 서운암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

- 지정일 : 2005. 11. 7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보경사

영산회상도는 서운암의 인법당에 봉안되어 있는 후불탱화(後佛幀畵)이다. 홍색으로 물들인 비단바탕에 그린 선묘탱화(線猫幀畵)로 크기는 가로 260cm, 세로 100cm이다. 화기에 의하면 상단탱화(上壇幀畵)라는 화명이 보이며, 1879년(광서5년)에 금어 응조가 그린 것이다. 가로로 긴 화면의 중앙에 좌상의 석가를 두고 양옆으로 보살좌상, 보살입상, 상단의 6제자를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신중탱화(神衆幀畵)는 영산회후불탱화를 그렸던 금어 응조가 1879년에 함께 조성한 신중탱화이다. 때문에 인물의 얼굴모습 등 그 형태 및 필선 등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화기에는 ‘보경사서운암신중탱’이라 적고 있다. 크기는 가로 110cm, 세로 125cm이다.

### 9) 시도유형문화재 제376-2호 문원공晦齋李彦迪神道碑(文元公晦齋李彦迪神道碑)

- 지정일 : 2006. 1. 2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 81-1

조선중기의 문신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기리기 위하여 1586년에 건립되었다. 비문의 글씨는 손엽(孫曄)이 썼다. 신도비 인근에 이언적의 신위를 모신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202호 달전재사(達田齋舍)가 자리 잡고 있다.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에 1577년에 건립된 또 다른 이언적신도비가 있는데 건립연대나 이언적의 역사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두 신도비를 모두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이언적은 1491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성리학자로 1514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 사헌부지평, 이조정랑 등을 역임하다가 1530년 김안로(金安老) 일파에 의해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후 복귀하여 경상도관찰사와 한성부판윤 등을 지내고 명종 즉위 후 좌찬성에 이르렀으나 1547년 정미사화(丁未土禍)에 연루되어 평안도 강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

### 10) 시도유형문화재 제390호(경북) 양민공 손소 및 정부인 류씨의 묘비, 석인상

- 지정일 : 2006. 10. 16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80-3

손소(孫昭, 1433~1484)는 처가를 따라 양동마을에 정착하여 세거(世居)하였고, 세조 5년(1459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주부(主簿),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역임했으며,

이시애의 난 때 종사관으로 출정하여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책록 되었다. 이후 안동부사, 진주목사를 역임하였다.

묘비(墓碑)와 석인상(石人像)의 건립연대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묘비의 찬자(撰者)인 김종직(金宗直), 서자(書者)인 손중돈(孫仲墩)이 조선 초기 사림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석인상은 양식상으로도 특이한 점이 보이므로 일괄하여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 11) 시도유형문화재 제391호(경북) 경절공 손중돈 및 정부인 최씨의 묘비, 석인상

- 지정일 : 2006. 10. 16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 66-2

손중돈(孫仲墩, 1463~1529)은 손소(孫昭)의 아들로, 성종20년(1489년)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역임하였다.

이후 공조·이조판서 및 경상·전라·충청도 등의 관찰사를 역임했고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다.

묘비(墓碑)와 석인상(石人像)의 건립연대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묘비의 찬자(撰者)인 이언적(李彦迪), 홍언필(洪彦弼)과 서자(書者)인 이관징(李觀徵)이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와 명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석인상은 양식상으로도 특이한 점이 보이므로 일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 2. 시도기념물(市道記念物)

### 1) 도기념물 제1호(경북) 보경사의 탱자나무(寶鏡寺의 탱자나무)

- 지정일 : 1974. 12. 10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탱자나무는 주로 영·호남지방에 분포하며 일본·중국에서도 자란다. 열매와 껍질은 약재로 사용되며 줄기에 가시가 나 있어 과수원 울타리용으로 적합하다.

보경사 경내 천왕문(天王門) 우측 동편(보경사 종무소 마당)에 있는 탱자나무는 2그루가 수관(樹冠)을 형성하고 있고, 수관은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수세(樹勢)는 왕성하다.

근원경(根圓徑)은 0.8m, 수고(樹高)는 6m정도이다. 탱자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것이 희귀하므로 노거수로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2) 시도기념물 제21호(경북) 흥해 이팝나무군락

- 지정일 : 1975. 12. 30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 129

이팝나무란 이름은 꽃이 필 때 나무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이밥, 즉 쌀밥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하며, 여름이 시작될 때인 입하에 꽃이 피기 때문에 ‘입하목(立夏木)’이라 부르기 시작하여 입하목에서 입하나무를 거쳐 오늘의 이팝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의창읍 이팝나무군락은 흥해향교 동쪽에 위치하며, 34그루의 이팝나무가 상수리나무와 섞여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 군락은 고려 충숙왕(재위 1313~1330)때 이곳에 향교를 지은 후 기념으로 심은 이팝나무에서 씨가 떨어져 번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팝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므로 비의 양이 적당하면 꽃이 활짝 피고, 부족하면 잘 피지 못한다. 의창읍 이팝나무군락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되어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3) 시도기념물 제39호(경북) 호미곶등대(虎尾串燈臺)

- 지정일 : 1982. 8. 4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21

우리나라 지도상 호랑이 꼬리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등대이다. 이곳을 ‘호미곶’ 혹은 ‘동외곶’이라고 하는데, 서쪽으로는 영일만, 동쪽으로는 동해와 만나고 있어 일명 ‘대보(大浦)등대’라고도 한다. 높이 26.4m, 둘레는 밑부분이 24m, 윗부분이 17m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겉모습은 8각형의 탑 형식으로 근대식 건축 양식을 사용하여 지었는데,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로만 쌓아올렸다. 내부는 6층으로 되어 있으며, 각층의 천장마다 조선 왕실의 상징무늬인 배꽃모양의 문장(紋章)이 조각되어 있다. 조선 고종 7년(1903)에 건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로, 건축사적·문화재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다.

## 4) 시도기념물 제57호(경북) 영일우각동 향나무(迎日牛角洞 향나무)

- 지정일 : 1985. 10. 15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신광면 우각리 113

향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울릉도와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나무·노송나무로도 불린다. 이 나무는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용도로 쓰이며 정원수·공원수로도 많이 심는다.

영일 우각동향나무는 우각리에 있는 오선정(五宣亭) 담장 안에 위치한다. 높이는 21m이고, 나이는 4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영일 우각동향나무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지내온 나무로, 현재 여주 이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5) 시도기념물 제70호(경북) 입암서원 일원(立岩書院 一圓)**

- 지정일 : 1986. 12. 11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산21 외 13필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기념물 제70호로 지정되었다. 1657년(효종 8)에 장현광(張顯光)·권극립(權克立)·정사상(鄭四象)·손우남(孫宇男)·정사진(鄭四震)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 위패를 모셨다. 1868년(고종 5)에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3년에 강당이 복원되고 1974년에 묘우(廟宇)가 복원되었다. 서원의 건물로는 묘우·일제당·만활당(萬活堂) 등이 있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2월 하정(下丁, 세번째 丁日)에 향사를 지낸다. 유물로는 장현광의 영정과 마상도(馬上刀)·지팡이·좌장 등이 있다.

서원 안에 있는 향나무는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기념물 제71호로 지정되었다가 태풍으로 인해 고사하여 2004년 12월 6일 지정 해제되었다.

입암서원은 고종 5년(186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고, 1907년 일제에 의해 묘우가 소실되었으며 1913년과 1974년에 복원하였다.

**6) 시도기념물 제95호(경북) 영일냉수리고분(迎日冷水里古墳)**

- 지정일 : 1994. 4. 16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산78-3 외 5필

한강 이남에서 발굴 조사된 6세기 전반의 신라 때 만든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이다. 구조는 매우 큰 편이고 특이한 내부 형식을 갖추고 있다.

돌방무덤에는 옆방(측실)이 설치되어 추가장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널길(연도)의 옆면에 부실이 딸리고 현실 안에는 2개의 벽감이 설치되어 있다. 도굴된 상태였으나 관장식, 달개(영락), 금반지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수장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냉수리 무덤들 주변에는 이 무덤 외에도 86기 이상이 분포하고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 7) 시도기념물 제96호(경북) 남미질부성(南彌秩夫城)

- 지정일 : 1994. 4. 16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중성리, 망천리

남미질부성은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쪽 평지위에 돌출한 구릉지를 이용하여 쌓은 성이다. 성벽은 흙을 이겨서 쌓은 토성이며, 성벽둘레는 약 2km 정도로 대형규모의 성곽이다. 성 안에는 남성리의 ‘못산마을’이 있고 이 마을의 서편 구릉지에 성주의 무덤으로 전하는 것이 7~9기 정도 남아 있다.

기록에는 1개의 못과 3개의 우물이 있어서 성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1개의 못과 1개의 우물이 남아있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따르면 9월에 사람들을 모아 파리성·미실성·진덕성 등 12성을 쌓았다고 한다. 여기서의 미실성이 이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성곽의 축조가 이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8) 시도기념물 제120호(경북) 영일일월지(迎日日月池)

- 지정일 : 1997. 3. 17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일원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 즉위(卽位) 4년(157)에 신라 땅 동쪽 일월동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오랑이 고기를 잡고 바위에 앉아 해초를 따던 중 갑자기 바위가 움직여 동쪽으로 흘러가 일본의 섬나라에 도착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은 이를 신비하게 여겨 왕으로 모셨다.

한편 세오녀는 연오랑을 찾아 해매다가 그의 신발을 발견하고 바위에 서니 바위가 다시 움직여 연오랑이 있는 섬에 도착하여 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신라에는 해와 달이 없어져 천지가 어두워졌는데, 아달라왕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연오랑과 세오녀가 바다를 건너가고 없어 빛을 잃었다고 하였다.

이에 왕은 연오랑과 세오녀에게 신라에 돌아오도록 명령했지만, 그들은 하늘의 뜻으로 이곳에 와서 왕과 왕비가 되었으니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세오녀가 짚 비단을 주며 하늘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라 하였다. 이에 제사를 지내니 해와 달이 다시 환하게 빛이 났다고 한다.

이때부터 제사(祭祀)를 지내던 못을 일월지(日月池)라 하고 이 지역을 도기야(都祈野)라 하였으며, 지금도 이 지역을 일월향(日月鄉)이라고 부르고 있다.

### 3. 시도 민속자료

#### 1) 시도 민속자료 제80호(경북) 오덕동애은당고택(吾德洞愛隱堂故宅)

- 지정일 : 1988. 9. 23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6

북평사 전주부윤 전주진병마절제사(北評事 全州府尹 全州鎭兵馬節制使)를 지낸 바 있고 임진왜란 당시 많은 공을 세운 농포(農圃) 정문부(政文孚)선생이 식솔들의 피난처로 사용하다가 임진왜란 후 고향인 진주로 이사하면서 그의 손서인 사의당(四宜堂) 이강(李薑)의 7남매 자녀 분가시에 4남(男) 이덕소(李德邵)의 분가로 관리해 오다가 현재의 소유주인 이동우(李東禹)의 5대조 이재급(李在汲)이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애은당 고택이 위치한 지형은 거북형으로, 건물배치를 거북형으로 축조하여 거북 앞발 위치에 각각 별당과 방앗간을 두었고 머리 부분에 속하는 앞면에 잠실(蠶室)이 있었으며 꼬리부분에 화장실이 있다.

#### 2) 시도 민속자료 제81호(경북) 오덕동사우정고택(吾德洞四友亭故宅)

- 지정일 : 1988. 9. 23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306

사우정은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운 농포 정문부(1565~1624)의 할아버지인 정언각이 청송 부사로 있을 때 지은 것이라 한다.

그 때의 지명을 송을곡이라 불렀는데, 임진왜란 때 송(松)자가 든 지명에서 왜병이 패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곳을 피난처로 삼았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인 진주로 돌아가면서 정문부의 손녀사위인 이강에게 이 집을 주어 물려오고 있다. 그 후손인 이현만이 자신의 호를 따서 사우정이라 집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一자형의 사랑채와 ㄷ자형의 안채가 있으며, 안채 오른쪽 모퉁이에 사당터가 있다. 조선중기 사대부집의 생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제3절 지역 문화재

### 1. 문화재자료

#### 1) 문화재자료 제1호 연일향교대성전(延日鄕校大成殿)

- 지정일 : 1985. 8. 5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효자동 407

향교는 지방에 세운 국립교육기관으로 공자 등 성현에게 제사 지내는 기능과 학생을 교육하는 강학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조선 중종(中宗) 2년(1507)에 현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에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어 숙종(肅宗)때 대송면 지좌동에 중창(重創)하여 고종(高宗) 4년(1867) 현감 원우상(元禹常)에 의하여 현 위치로 이건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명륜학교로 사용된 바 있고 1983년 2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포항시에 편입되어 보존되고 있다.

특히,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겹처마의 집으로 주심포계(柱心包系) 외일출목(外一出目)의 조선후기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물이다. 부속 건물로 내삼문, 외삼문 및 명륜당, 중문, 포사 등이 있다.

#### 2) 문화재자료 제87호 흥해향교대성전(興海鄕校大成殿)

- 지정일 : 1985. 8. 5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3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에서 군(郡)의 서쪽 1리에 있었다고 하는 흥해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나 연혁에 관한 자료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으므로 창건연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정진백(鄭鎭伯, 1897~1924)의 문집인 《석농집(石農集)》의 「흥해향교 중수기(興海鄕校 重修記)」에서 “본 군 향교의 설치는 건국으로부터 창건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조에 접어들면서 이에 향교가 창건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전쟁 때 대성전과 동무만 남고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수

리·복원하였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로는 제사 공간인 대성전과 동무·서무,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강당인 명륜당 등이다.

### 3) 문화재자료 제88호 오어사대웅전(吾魚寺大雄殿)

- 지정일 : 1985. 8. 5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향사리 34

신라 26대 진평왕 대에 창건된 사찰로 당초에는 향사사(恒沙寺)라 불렸으나 원효대사와 혜공선사가 이곳에서 수도할 때法力(法力)으로 개천의 고기를 생환토록 시합을 하였는데, 그 중 한 마리는 살지 못하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힘차게 헤엄치는지라, 그 고기가 서로 자기가 살린 고기라고 하여 ‘나 오(吾), 고기어(魚)’자를 써서 오어사(吾魚寺)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 절 경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나한전, 설선당, 칠성각, 산령각 등의 건물이 남아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 다포(多包) 집으로 조선 영조 17년(1741)에 중건하였다.

사찰 주변은 운제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어지(吾魚池)의 푸른 물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기암절벽 위의 자장암 및 오어사 서쪽의 원효암 등이 있다.

### 4) 문화재자료 제201호 봉강재(鳳岡齋)

- 지정일 : 1987. 12. 29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기계면 봉계리 552

파평윤씨 시조인 윤신달(893~973)은 고려 왕건의 막료(幕僚)가 되어 고려국의 건국 및 국기(國基) 다지는 일에 많은 공을 세웠다.

파평윤씨(坡平尹氏) 시조인 태사공(太師公) 윤신달(尹辛達, 893~973)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1752년에 창건한 재사(齋舍)로서 28세손인 윤광소(尹光紹)가 안동부사(安東府使)로 재임시 헌금 50량과 목재 15칸분을 헌납하여 창건한 후 26세손 윤동도(尹東度)가 경상감사 재직시(1762년) 수축하였다.

1763년 경상감사 윤광안(尹光顔)과 안동부사 윤성대(尹聲大)에 의해 위토(位土)를 늘리고 재사를 중수하였다.

봉강재는 조선중기 건축양식을 잘 보존한 건축물로 평면구성에서 독특한 점이 있으며, 치목수법이 우수하며, 卍자형 팔작지붕에 겹처마로 정면 6칸, 측면 4칸의 구조로 되어 있다.

### 5) 문화재자료 제202호 달전재사(達田齋舍)

- 지정일 : 1987. 12. 29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425

원래는 승려들이 거주하였다고 전하는 건물이지만 현재는 조선 전기 문신인 이언적(1491~1553) 선생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로 쓰고 있다.

이언적은 24세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이조정랑, 밀양부사를 거쳐 중종 25년(1530) 사간이 되었다. 그러나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며 벼슬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김안로가 물러난 뒤 홍문관교리, 직제학이 되었고 전주부윤으로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그의 송덕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 뒤 명종 2년(1547) 양재역 벽서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강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저술을 남기며 생을 마쳤다. 그는 조광조·김광필·정여창과 함께 동방 4현 중 한 분으로 손꼽히며 조선초 성리학의 성격과 방향을 정립한 선구자이다. 조선 태종(太宗) 2년(1402)경에 창건한 건물이라고 구전될 뿐 확실한 근거자료는 없으며, 현재는 조선조 성리학자로 동방 오현(五賢) 중의 한분인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선생의 묘소를 수호하는 재사로 사용하고 있다. 앞면 6칸·옆면 6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전체적으로 ㄱ자형 구조로 건물 뒤쪽에 누각 형태의 난간이 달린 마루가 있고, 좌우 측면에는 좁은 출입문을 두어 다른 재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구전(口傳)에 따르면 이 건물은 약 8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불상(佛像)은 없지만 승도(僧徒)들이 거주하며 묘소를 수호하였다고 한다.

### 6) 문화재자료 제205호 영일기천고택(迎日記泉故宅)

- 지정일 : 1988. 9. 23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235

이 마을에는 경주 이씨(李氏)들이 세거(世居)하고 있으며, 이 고택(古宅)은 이승운(李升運, 1793~1861)이 건축하였다고 전함으로 건립연대는 19세기 초엽으로 짐작된다.

6.25동란 때 이 마을은 거의 다 파괴 되었으나 요행히 이 집만은 전화(戰禍)를 면하여 오늘날까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흙 담으로 둘러싸인 넓은 마당 안으로 一자형 안채가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안채 앞쪽 동편에는 一자형 사랑채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앞면 5칸 반·옆면 1칸 규모이고 사랑채는 앞면 4칸·옆면 1칸 규모이다. 지붕은 2동 모두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7) 문화재자료 제206호 오덕동이원돌가옥(吾德洞李源玆家屋)**

- 지정일 : 1988. 9. 23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오덕리 291

이 가옥은 농포 정문부(農圃 鄭文孚)선생이 임진왜란 후 손서인 이강(李壘)에게 별옥일체(別屋一體)를 양여할 때의 부속건물 중의 일부로서 이강의 둘째아들 이덕령(李德齡)에게 물려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현소유자인 이원돌(李源玆)은 이강의 9세손(世孫)이다.

정면 4칸, 측면 6칸의 목조와가인 이 가옥은 ㅁ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조선중기에 창건한 건물로 당시의 시대상을 잘 나타내주는 주택 평면구성이다.

**8) 문화재자료 제224호 장기척화비(長鬚斥和碑)**

- 지정일 : 1990. 8. 7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07

척화비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끈 흥선대원군이 서양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더욱 강력히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해 서울 및 전국의 중요 도로변에 세우도록 한 비로, 이 비도 그 중의 하나이다.

비는 반듯한 사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운 모습이며, 비몸의 네 모서리와 윗변의 양끝을 단정히 다듬어 놓았다.

고종 8년(1871) 신미양요 이후 같은 해에 일제히 세운 것으로, 고종 19년(1882)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대원군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납치되면서 대부분의 척화비들은 철거되고, 이처럼 몇 기의 비들만이 곳곳에 남아 옛 역사의 한 부분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원래는 장기읍성 안에 있었으나, 1990년에 장기읍사무소 정원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9) 문화재자료 제231호 보경사대웅전(寶鏡寺大雄殿)**

- 지정일 : 1990. 8. 7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는 신라 진평왕 25년(602)에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대덕 지명법사가 세운 절이다. 이 절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은 지은 시기를 알 수 없고 다만 숙종 3년(1677)과 1932년에 고쳐지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

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건물 안쪽 바닥은 마루를 깔았으며, 천장은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꾸며 천장 속을 가리고 있는 형태이다. 가운데칸 뒷부분에는 불단을 마련하여 삼존불상을 모셔 놓았다. 건물의 형식이나 세부 기법이 전형적인 19세기 불전 형식을 보여 준다.

#### 10) 문화재자료 제250호 제남헌(濟南軒)

- 지정일 : 1991. 9. 6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8

흥해군의 관리들이 업무를 처리하던 관아 건물이다. 언제 처음 지었는지 알 수 없고, 조선 헌종 1년(1835)에 다시 지었다. 그 뒤 1925년 원래 자리에서 동남쪽으로 70m 떨어진 흥해읍사무소로 옮겼다가 1976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지었다. 흥해읍 성과 관아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모두 헐리고 이 건물만 남았다. 앞면 7칸·옆면 3칸 규모에 一자형 평면을 갖춘 건물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간결하게 짜 놓았다.

#### 11) 문화재자료 제267호 분옥정(噴玉亭)

- 지정일 : 1992. 11. 26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1리 739

분옥정은 조선숙종(재위 1674~1720)때 문신인 김계영의 덕업을 찬양하기 위해 순조 20년(1820) 후손인 김종한 선생이 지은 정자이다. ‘용계정사(龍溪精舍)’라고도 불리며, 1962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다. 앞면 3칸·옆면 3칸의 규모이며 서쪽을 향해 있다. 배치를 보면 출입은 건물 뒤편으로 하고, 앞면은 계곡 물을 향하게 하였다. 분옥정은 주변의 풍경을 고려한 T자형 평면을 갖춘 집이며,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 12) 문화재자료 제327호 장기향교(長鬢鄕校)

- 지정일 : 1997. 9. 29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202

장기향교는 조선 태종 5년(1405)에 처음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자 선조 33년(1600)에 다시 지었다. 정조 9년(1785)에 마현동으로 옮겨지었고, 1931년 군수 김

영수가 읍성내에 있던 구객관을 수리하고 위패를 모셔 지금의 향교로 전해오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서문경·서극인·이대임·이눌 등이 향교에 모시고 있던 위패를 용암석굴에 옮겨 놓아 위패만은 무사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향교를 옮겨지을 때 덕계 임재화가 대대로 살던 자기 집터를 내놓아 향교 재건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13) 문화재자료 제328호 청하향교(淸河鄕校)

- 지정일 : 1997. 9. 29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0

청하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 서정리에 처음 지었으며, 숙종 39년(1713)에 덕성리로 옮겨 짓는 작업을 시작하여 숙종 42년(1716)에 완공하였다. 그 뒤 헌종 9년(1843)과 1923년 두 차례 보수를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동재·천화루·신문(내삼문) 등이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대성전은 6칸의 규모이며,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강당인 명륜당은 6칸 규모이고,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는 5칸, 휴식 공간인 천화루는 4칸 규모이다.

### 14) 문화재자료 제356호 하학재(下學齋)

- 지정일 : 1999. 3. 11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177

조선 전기 문신인 손중돈(1463~1529)의 묘 근처에 세운 재실이다. 그는 성종 21년(1489) 과거에 급제하였고 1506년 상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곳 주민들은 그의 선정을 기리고자 생사당(生祠堂)을 마련하여 선생의 초상화를 모시기도 하였다. 중종 5년(1510) 청백리로 추대되었고 이조판서, 대사간, 관찰사 등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중종 24년(1529)에 그가 67세의 나이로 죽자 임금은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틀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도음산(禱蔭山) 묘하(墓下)의 재사(齋舍)인 하학재(下學齋) 우재(愚齋)의 현손(玄孫)인 종하(宗賀)가 1663년에 건립하였다고 전하나, 대청 상부가구에는 1873년에 기록된 상량문(上樑文) ‘승정기원후오계유구월초육일신해말시립주이십일일병인사시상량(崇禎紀元後五癸酉九月初六日辛亥末時立柱二十一日丙寅巳時上樑)’으로 보아 이때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진 것 같다.



**15) 문화재자료 제368호 포항수원김씨남계공파종중문적(浦項水原金氏南溪公派宗中文籍)**

- 지정일 : 2002. 7. 15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77-14

조선 성종 때의 문신인 김정(金淀, 1426~1493)에게 내린 교지로, 성종 6년(1475)에 사보, 인동현감, 교리 등에 임명되면서 나라에서 받은 교지 3점이다.

김정은 수원 김씨로, 세조 2년(1456)에 과거에 급제하여 성종 6년(1475)에 사포서 사포를 거쳐 성종 9년(1478) 인동현감, 성종 24년(1493)에 승문원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 성종 때의 문신 김정이 사포·인동현감·승문원교리에 임명되면서 나라에서 받은 교지 3점이 1999년 12월 30일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368호로 지정되었고, 김팔음(金八音, 1651~1729)의 교지와 첩지, 김현룡(金見龍, 1550~1620)의 호조참의 증직 교지와 1592년 4월부터 1598년 2월까지의 임진왜란 참전기록을 담은 ≪용사일기(龍蛇日記)≫가 2002년 7월 15일 추가로 지정되었다. 그밖에 18세기 후반 이래의 호구 단자 10여 점과 완문·소지, 1866년 병인양요 때의 전령·통문·시권 등 고문서 5종 14점이 2005년 5월 23일 추가되었다.

이 교지들은 현재 15세기의 고문서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16) 문화재자료 제369호 칠인정(七印亭)**

- 지정일 : 1999. 12. 30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825 외

이 건물은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향(南向)의 정자로서, 2개의 방과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409년(태종 9) 고려말 흥의위(興義衛) 보승랑장(保勝郎將) 출신의 장표(張彪)가 이 정자를 건립하여 낙성식을 거행할 때 그의 아들 4인과 사위 3명이 모두 관인(官人)으로 재직하면서 이에 참여하여, 정자의 앞에 있는 두 그루의 괴목(槐木)에 인수(印綬)를 걸었다는 것을 기념하여 칠인정(七印亭)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칠인정(七印亭)은 흥해읍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4km 가량 떨어진 초곡리(草谷理)의 인동 장씨(仁同 張氏) 집성촌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있는 건물은 18세기 후반에 다시 지은 것으로, 1986년에 낡거나 부서진 곳을 보수하였고, 1993년에 기와·담·장벽 등을 다시 고쳐지었다. 칠인정은 18세기 후반에 지은 것이지만, 정자·연못·조경 환경 등은 15세기 조경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17) 문화재자료 제406호 월동재(月洞齋)**

- 지정일 : 2001. 8. 20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 212

월동재는 임란시 창의장군 김현룡(金見龍)의 호를 따서 지은 재실이며 재실이 자리한 장동은 수원김씨들이 개척한 마을이라 한다. 수원김씨(水原金氏) 남계공파문회에서 소유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1900년대 초에 세워졌다. 수원김씨의 재실로 알려져 있다. 수원김씨 입향조 묘소로 들어가는 계곡인 월동에 자리잡고 있다. 흠처마 모임지붕 형식으로 된 단각(單閣) 규모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월동재가 있고 평면은 동쪽으로부터 온돌방 1칸, 대청 2칸, 온돌방 1칸이 연결되어 있으며, 대청에는 북쪽으로 문을 달았다. 상량문에 「상지삼십구년 임인 이월십육일 신 감주상량간(上之三十九年 壬寅 二月十六日 申 監柱上樑良)」이라는 묵서로 보아 1902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8) 문화재자료 제479호 보경사서운암부도군(寶鏡寺瑞雲庵浮屠群)**

- 지정일 : 2005. 3. 14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38

서운암은 1215년 원진국사가 보경사를 중창할 때 산내의 아홉 개 암자의 하나로 창건하였다고 한다. 1662년 보경사 중건 때 서운암도 함께 중건되었고, 1898년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현 경내에는 인법당과 삼성각, 독성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도군은 삼성각 뒷편 독성각 앞에 위치한다. 부도군 주위로는 방형으로 돌담을 쌓아 풍치 있는 부도밭을 이루고 있다.

부도군은 1400~1800년대에 제작된 팔각원당형과 석종형의 부도 11기 및 부도비 3기가 대부분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부도 1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도명이 확인된다. 확인되는 부도는 계영당부도(桂影堂浮屠), 동봉대선사부도(東峰大禪師浮屠), 송계당부도(松溪堂浮屠), 오암당부도(鰲巖堂浮屠), 청과당부도(淸坡堂浮屠), 해봉당부도(海峰堂浮屠), 회적당부도(晦迹堂浮屠), 심진당부도(心眞堂浮屠), 청심당부도(淸心堂浮屠)이며, 부도비는 계영당부도비, 동봉대선사부도비(1625년), 오암당부도비(1793년)의 3기가 한 영역 안에 있다. 이 부도군은 15세기 초반~19세기 초반에 걸쳐 보경사 및 서운암의 고승들을 모신 묘원(墓園)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이와 같이 10기(基)가 넘는 부도가 한 장소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完형(完型)이고, 양식적으로 볼 때 영남지역의 부도양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 문화재자료 제481호 포항우각리여주이씨고택(浦項牛角里麗州李氏古宅)**

- 지정일 : 2005. 6. 20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529

우각리는 이언적의 5번째 손자인 오의정(五宜亭) 이의택(李宜澤) 계열이 17세기 이후 이거하여 세거해 온 곳이다.

고택의 평면은 一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가 중문채와 이어지고 맞은편으로 지금은 없어진 고방채가 위치하여 ㄷ자형을 이루었다. 그리고 사랑채 앞으로 곡간채와 대문채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랑채와 곡간채를 사랑담장으로 이어 협문으로 통하게 하여 공간 분리가 명확하다.

사랑채는 자연석 기단에 ㄱ자형으로 건물을 앉혀 정면 4칸에 2칸 마루와 2칸 온돌방을 두었다. 전면은 5량가이다. 사랑마루와 연하여 뒷쪽으로 4칸을 연장하여 이어진 부분에 마루를 두어 사랑과 공간을 분리시키면서 폐쇄형 마루방과 온돌방을 첨가하였고, 온돌방 뒷편으로 고방 2칸을 더 첨가시켰다.

고방은 출입문을 내정쪽으로 설치하여 정침에서 활용하였던 듯하다. 연장한 부분은 3량가에 맞배지붕이다. 마루를 연결시킴으로써 사랑의 전면과 연장한 부분이 각기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면서도 동선연결은 원활한 특징적인 배치를 보인다.

고택은 각 건축물의 영역이 잘 분리되어 있으며 창호와 평면구성 및 건축기법에서 19세기의 전통적 수법들이 잘 찾아진다. 전체적으로 당시 남부지방 반가(班家)로서의 구성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 문화재자료 제515호 포항 대성사 석조관음보살좌상(浦項 大聖寺 石彫觀音菩薩坐像)**

- 지정일 : 2007. 1. 8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540-4

불상은 대좌와 보병, 보관까지 한 개의 돌로 조성한 관세음보살좌상이다. 2007년 1월 8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15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34cm의 소형 불상으로 발원문을 통해 조성연대가 1736년에 제작되었음을 확인되었다. 마노석(瑪瑙石)으로 제작되었으며, 머리 위에는 보관을 쓰고 소박한 형태의 법의를 걸치고 있다.

얼굴은 방형의 원만상(圓滿像)이며 이목구비가 잘 정제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두 손에 커다란 보병(寶瓶)을 받들고 있어 관세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 2. 등록문화재

### 1) 등록문화재 제217호 포항 (구)삼화제철소 고로

- 지정일 : 2005. 11. 11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광복 이전인 11943년 고레가와제철(是川製鐵)이 20톤/일 규모의 소형 고로 8기를 갖춘 삼척공장을 건설하였다. 그 때 건립한 고로 중 하나이며, 1945년 광복 후 삼화제철소로 사명(社名)을 변경하였고 이후 포항제철의 건립 전까지 유일한 고로 역할을 해왔다. 당시 남한에 건립된 고로 중 현존하는 유일한 고로이며, 매각 위기에 놓인 고로 1기를 구입하여 포항제철소로 이전 보관 중 2003년 포스코 역사관 개관과 함께 현재의 위치에 이전 복원하였다. 우리나라 현대제철기술과 제철공업발달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시설물로 역사적, 산업발달사적 가치가 있다.

## 3. 무형문화재

### 1) 무형문화재 제 82-가호 동해안 별신굿

- 지정일 : 2006. 6. 19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대도동 101-33

강원도 고성군에서부터 부산에 이르는 바닷가에서 행해지는 동해안 별신굿은 풍어를 기원하고 해상사고를 막기 위해 연행하는 마을굿으로 종교적 기능과 함께 축제와 오락, 예능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세습무(世襲巫)들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동해안 별신굿은 매년 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3년마다(실제로는 만2년) 하는 곳이 가장 많다. 굿하는 기간은 짧게는 1박 2일에서 길게는 6박 7일까지도 하며, 보통 굿거리들이 18거리에서 24거리 정도이다. 김용택은 세습무였던 부모로부터 무악을 배워 9세 때부터 굿판에 있었고, 20대부터 굿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동해안 별신굿 화랭이로서 최고로 인정받는 악사이다. 함께 보유자로 인정된 무녀 김영희는 현재 경상북도 굿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의 별신굿을 모두 할 수 있는 유일한 무녀로 20대부터 굿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여 현재 40년이 넘게 동해안 별신굿판을 벌여왔다. 동해안 명무(名巫)로 일컬어지던 어머니 고 이금옥과 아버지 고 김석출로부터 동해안 무속에 대한 이론과 실기의 모든 과정을 배웠다.

## 4. 문화유적

### 1) 산성·읍성·목장성(山城·邑城·牧場城)

명칭	소재지	비고
北彌秩夫城址 (북미질부성지)	북구 흥해읍 흥안리 (낙시봉)	곡강천 하구에 위치하여 칠포지역 해안을 방어목적으로 축조 신라 지증왕 5년(504)에 축조한 토성임 성은 둘레 5500척(尺), 1지(池), 3정(井), 있으며, 고려태조3년 (903)에 성주 흰달(흰달)이 태조에 항복함
文星山城址 (문성산성지)	북구 기계면 문성리	문성산 정상에 위치한 성. 둘레 1000척, 높이 10척정도임 신라때 흙으로 쌓았으며, 고려때 석성(石城)으로 축조한 것으로 추정됨
古縣城址 (고현성지)	남구 오천읍 원리	신라때 축조된 성으로 추정되는 토성둘레는 1000척정도임
萬里山城址 (만리산성지)	남구 오천읍 갈평리, 진전리	동,서로 성의 길이는 30여리가 되는 토성(토성)이다. 남으로 경주, 울산까지 이어진 이 성(성)은 신라가 왜구 침략을 막기 위해 축조한 성이다.
磊山城址 (뇌산성지)	남구 장기면 모포리	모포리 해안의 뇌성산 정상에 축조된 성. 둘레 2460척, 높이 10척이며 1지 2정이 있었다한다. 해안쪽은 절벽을 이용하여 흙으로 성(성)을 쌓았고, 서, 남, 북쪽은 석성(석성)으로 되어 있다.
長平府城址 (장평부성지)	남구 장기면 방산리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며, 고려때 장평부의 부소재지가 있던 곳으로 추정됨. 축성 시기는 알 수 없다.
安址山城址 (안지산성지)	북구 신광면 안덕리	신라 26대 진평왕때 축조된 토성이라 전해지나 흔적을 찾기 어려움
寶鏡寺城址 (보경사성지)	북구 송라면 중산리	고려말에 축조된 석성, 보경사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성이라 한다.
古邑城址 (고읍성지)	남구 대송면 장흥리	신라때 축성된 토성. 경덕왕때 근오지현을 임정현으로 개칭하여 원리에 있던 현청을 이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고려 현종시 연일읍성을 축성하여 이전 할 때까지 읍청의 기능을 한 곳 조선 영조 23년(1747)에 연일읍성은 다시 이곳으로 옮겨다가 철종 1년(1849)에 대잡으로 옮겨갔다.
九龍城址 (구룡성지)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병포리와 후동리 경계인 용두산 정상에 축조된 토성이다. 둘레는 1000척 정도, 높이 10척 정도, 1정이 있었다. 축성시기는 고려때 첨사진영을 설치하여 수군기지로 사용하였다.
北兄山城址 (북형산성지)	남구 연일읍 중명리	포항과 경주의 경계지역의 형산 정상에 축조된 성 축성시기는 신라 문무왕 13년(673)이전으로 추정됨. 성내에는 형산봉수대의 흔적이 있다.
興海邑城 (흥해읍성)	북구 흥해읍 성내리	고려 현종 2년(1011)에 토성으로 축조되었다가 우왕 15년(1398)에 석성으로 고쳐 쌓아 1914년 까지 읍성으로 사용되었다. 성의 둘레는 1493척, 높이 13척, 2정, 2지가 있었다.
舊延日邑城 (구 연일읍성)	남구 대송면 남성리	고려 현종2년(1011)토성으로 축조되었다가 공양왕2년(1390) 9월에 석성으로 다시 축조되었다. 조선 영조 23년(1747) 장흥리로 이전 할 때까지 연일현의 읍성으로 사용되었다.
淸河邑城 (청하읍성)	북구 청하면 덕성리	고려 현종2년(1011)토성으로 축조되었다가 조선 세종 9년(1432)에 석성으로 다시 축성하였다. 성의 둘레는 1353척, 2정 2지가 있었다.
장기목장성 (長響牧場城)	남구 구룡포읍 놀태리 남구 동해면 흥환리	신라 선덕왕때 군마사육을 위해 만든 석성이다. 구룡포 성문리에서 놀태리, 공개산을 거쳐 동해면 흥환리까지 25여리의 거리에 걸쳐 높이 10척 정도로 축조되었다.

2) 고현지·진영지·창지( · 鎭營址·倉址)

명 칭	소재지	축조연대	비 고
金井縣址 (금정현지)	북구 청하면 금정리	고려	고구려의 아혜현(阿兮縣)의 터
古縣縣址 (고현현지)	북구 청하면 고현리	신라	신라 하방현(河芳縣)의 터
竹長縣址 (죽장현지)	북구 죽장면 현내리	신라	신라 장진현(長鎭縣)의 터
杞溪縣址 (기계현지)	북구 기계면 현내리	신라	신라 모혜현(毛兮縣)의 터
神光縣址 (신광현지)	북구 신광면 토성리	신라 경덕왕	신라 신을현(神乙縣)의 터
介浦僉使鎭營址 (개포첨사진영지)	북구 청하면 월포리	신라	고려 우왕 13년(1387)에 통양포진영으로 옮김.
漆浦鎭營址 (칠포진영지)	북구 흥해읍 칠포리	조선 중종12년 (1517)	조선 고종 8년(1871)에 동래로 옮김
通洋浦萬戶鎭營址 (통양포만호진영지)	북구 두호동	고려 우왕13년 (1387)	조선 중종 12년(1517)에 칠포진영으로 옮김
包伊浦萬戶鎭營址 (포이포만호진영지)	남구 장기 모포리		조선 효종 9년(1658)에 동래로 옮김
兄山北倉址 (형산북창지)	남구 연일읍 증명리	조선	국창(國倉)의 역할
神光倉址 (신광창지)	북구 신광면 토성리	조선	
杞溪倉址 (기계창지)	북구 기계면 문성리	조선	
竹長倉址 (죽장창지)	북구 죽장면 현내리	조선	
浦項倉址 (포항창지)	북구 덕수동 1719년 이전 설치로 추정	조선	1719년 이전 설치로 추정

3) 봉수대(烽燧臺)

명 칭	소재지	봉 수 처
知乙山 烽燧臺 (지을산 봉수대)	북구 흥해읍 우목리	동 - 대동배(大冬背)봉수대 북 - 오봉산(烏峰山)봉수대
烏峰山 烽燧臺 (오봉산 봉수대)	북구 흥해읍 칠포리	남 - 지을산(知乙山)봉수대 북 - 도이산(桃李山)봉수대
桃李山烽燧臺 (도이산봉수대)	북구 송라면 방석리	남- 오봉산(烏峰山)봉수대 북 - 별반산(別畔山)봉수대
福吉山烽燧臺 (복길산봉수대)	남구 지행면 계원리	북 - 경주 독산(禿山)봉수대 남 - 뇌산(磊山)봉수대
磊山烽燧臺 (뇌산봉수대)	남구 지행면 모포리	남 - 복길(福吉)봉수대 북 - 발산(鉢山) 봉수대
鉢山烽燧臺 (발산봉수대)	남구 동해면 발산리	남 - 뇌산(磊山)봉수대 북 - 대동배(大冬背)봉수대

명 칭	소 재 지	봉 수 처
大冬背烽燧臺 (대동배봉수대)	남구 대보면 대동배리	남 - 발산(鉢山)봉수대 북 - 지을(知乙)봉수대
獐谷山烽燧臺 (장곡산봉수대)	남구 대보면 구만리	남 - 발산(鉢山)봉수대 서 - 지을(知乙)봉수대
沙只山烽燧臺 (사지산봉수대)	남구 대보면 강사리	남 - 대곶(大串)봉수대 서 - 지을(知乙)봉수대
大串烽燧臺 (대곶봉수대)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남 - 뇌산(磊山)봉수대 북 - 사지(沙只)봉수대
沙火郎烽燧臺 (사화랑봉수대)	남구 동해면 석리	동 - 뇌산(磊山)봉수대 북 - 지을(知乙)봉수대
兄山烽燧臺 (형산봉수대)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남 - 경주 남산(南山)봉수대 북 - 지을(知乙)봉수대

#### 4) 역(驛)

명 칭	소 재 지	비 고
望昌驛 (망창역)	북구 흥해읍 망천리	흥해군 관아(官衙)에서 2리 지점에 위치 통양포로 연결됨
大松驛 (대송역)	남구 대송면 동촌리	연일현 관아에서 동쪽 10리에 있었다.
峯山驛 (봉산역)	남구 장기면 임중리	장기현 관아에서 5리 지점에 있음
松羅驛 (송라역)	북구 송라면 하송리	
南松羅驛 (남송라역)	북구 송라면 하송리	송라 도찰방부(松羅 道察訪府)가 있었음
仁庇驛 (인비역)	북구 기계면 인비리	안강, 영덕, 청송으로 연결됨
鵲峴驛 (작현역)	북구 청하현 고헌리	청하현 관아에서 남쪽 5리 지점에 있었음
金井驛 (금정역)	북구 청하면 서정리	청하현 관아에서 서쪽 7리 지점에 있었음
余川驛 (여천역)	북구 여천동	흥해현 관아에서 동남쪽 20리 지점에 있었다.
竹洞驛 (죽동역)	북구 신평면 죽성리	
多仁驛 (다인역)	북구 기계면 다인리	
注津驛 (주진역)	남구 연일읍 중명리	
毛伊峴驛 (모이현역)	남구 장기면 죽성리	장기현 관아에서 서쪽 20리 지점에 있었음
世界驛院 (세계역원)	남구 오천읍 세계리	

5) 목장지(牧場址)

명 칭	소 재 지	비 고
長髻牧場址 (장기목장지)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조선 효종 6년(1655)에 구룡포읍에서 동해면 흥환리까지 석성을 쌓아서 군마 사육을 위한 목장을 만들었다.
日月牧場址 (일월목장지)	남구 일월동	
鯨田牧場址 (경전목장지)	북구 죽장면 상옥리	고려때부터 군마사육이 있었다.
鳳林牧場址 (봉림목장지)	북구 흥해읍 곡강리	효종 6년에 장기목장으로 옮겨갔다,
마장목장지 (馬場牧場址)	북구 흥해읍 성곡1리	고려때 설치되었으며, 효종 6년에 장기목장으로 옮겨갔다,

6) 향교(鄕校)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興海鄕校 (흥해향교)	북구 흥해읍 옥성리	태조7년(1398)	
清河鄕校 (청하향교)	북구 청하면 덕성리	태조7년(1398)	1713년 현위치
長髻鄕校 (장기향교)	남구 장기면 읍내리	태종 5년(1405)	
延日鄕校 (연일향교)	남구 효자동	태조 7년 추정	1864년 현위치

7) 서원(書院)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享祠 先生(향사선생)
曲江書院 (곡강서원)	북구 흥해읍 남송3리	1607년(선조 4년)	李彥迪(이언적)
烏川書院 (오천서원)	남구 오천읍 원리	1588년(선조21년)	鄭襲明(정습명)
立岩書院 (입암서원)	북구 죽장면 입암리	1657년(효종 8년)	張顯光(장현광) 權克立(권극립)
廣南書院 (광남서원)	남구 구룡포읍 성동	1791년(정조 15년)	皇甫仁(황보인)
竹林書院 (죽림서원)	남구 장기면 읍내리	1707년(숙종 33년)	宋時烈(송시열)
鶴山書院 (학산서원)	북구 송라면 중산리	1692년(숙종 18년)	李彥迪(이언적)
德林書院 (덕림서원)	남구 장기면 임중리	1740년(영조 16년)	吳邦祐(오방우)
鶴三書院 (학삼서원)	남구 장기면 학곡리	1791년 (정조15년)	李大任(이대임)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享祠 先生(향사선생)
中陽書院 (중앙서원)	남구 동해면 중산리	1794년(정조18년)	徐 步(서 보)
螺谷書院 (라곡서원)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미상	安 侃(안 간)
安山書院 (안산서원)	남구 장기면 방산리	미상	金 淑(김 속)
三明書院 (삼명서원)	남구 장기면 마현리	1854년(철종 5년)	李 訥(이 늘)
西山書院 (서산서원)	남구 장기면 산서리	1760년	金冲漢(김충한)
琴山書院 (금산서원)	남구 장기면 금곡리	1707년	許進壽(허진수)
奉德書院 (봉덕서원)	남구 장기면 방산리	미상	朴斗極(박두극)
首城書院 (수성서원)	남구 동해면 공당리	미상	金達漢(김달한)

### 8) 관아건물(官衙建物)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濟南軒 (제남헌)	북구 흥해읍 성내리	현종 1년(1835)	영일민속박물관으로 사용
近民堂 (근민당)	남구 장기면 읍내리		장기면사무소 별관으로 사용

### 9) 정·재·루·당(亭·齋·樓·堂)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泰巖亭 (태암정)	북구 흥해읍 덕성리	미상	鶴城人 李雲紀 追慕 (학성인 이운기 추모)
七印亭 (칠인정)	북구 흥해읍 초곡리	태종9년(1409)	
勸武亭 (권무정)	북구 흥해읍 남성1리	영조때	흥해군수 金永綬(김영수)가 공술연마장으로 창건
春雨亭 (춘우정)	남구 장기면 방사리	미상	通德郎 朴斗極 追慕 (통덕랑 박두극 추모)
竹窩亭 (굴와정)	남구 장기면 금곡리		昌寧人 成慶圭 追慕 (창녕인 성경규 추모)
瑞花亭 (서화정)	남구 장기면 산서리		金應章 追慕 (김응장 추모)
桃源亭 (도원정)	북구 기계면 현내리		慶州人 李末소 追慕 (경주인 김말동 추모)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鶴南亭 (학남정)	북구 기계면 문성리		李晦慶(慶州府學訓長) 追慕 이회경(경주부학훈장) 추모
九萬亭 (구만정)	북구 기계면 현내리		慶州人 李道謙 追慕 (경주인 이도겸 추모)
雲樓亭 (운루정)	북구 기계면 현내리		中樞院府事 李循性 追慕 (중추원부사 이순성 추모)
然叟亭 (연수정)	북구 기계면 성계리		寧越人 辛赫柱 追慕 (영월인 신혁주 추모)
月峯亭 (월봉정)	북구 기계면 내단리		月城人 李圭讚 追慕 (월성인 이규찬 추모)
林隱亭 (임은정)	북구 기계면 현내리		李圭日 居處地 (이규일 거처지)
花樹亭 (화수정)	북구기계면 봉계리	1770년경	金啓榮 居處地 (김계영 거처지)
鶴阜亭 (학고정)	북구 기계면 계전리		月城人 李鍾濬 所有 (월성인 이종형 소유)
鶴溪亭 (학계정)	북구 기계면 계전리	미상	留日齊 崔公 追慕 (유일제 최공 추모)
龍淵亭 (용연정)	북구 기북면 미현리		永慕齊 李公 追慕 (영모제 이공 추모)
四友亭 (사우정)	북구 기북면		李憲淳의 號가 四友亭 (이헌순의 호가 사우정)
龍溪亭 (용계정)	북구 기북면 오덕리	명종 원년 (1546)	農甫 鄭文字의 別莊 (농보 김문부의 별장)
永慕亭 (영모정)	북구 청하면 소동리		開城留守 金芸 追慕 (개성유수 김운 추모)
月浦亭 (월포정)	북구 죽장면 두마리		朴啓光 追慕 (박계광 추모)
樂芝亭 (낙지정)	북구죽장면 지동리		崔彭壽 追慕 (최평수 추모)
吾老亭 (오노정)	북구 죽장면 입암리		權得重 居處地 (권득중 거처지)
五宜亭 (오의정)	북구 신광면 우각리	임란 이후	李宜溫(이의온)이 건립
蒙厓亭 (몽애정)	북구 신광면 우각리		李壽(이도)의 後孫이 건립
愚軒亭 (우현정)	북구 신광면 우각리		
道軒亭 (도현정)	북구 신광면 우각리		李在友居處地 (이재우 거처지)
曲江齋 (곡강재)	북구 흥해읍 흥안리	1954년 중건	烏川鄭氏 先塋 崇慕處 (오천정씨 선영 숭모처)
曲江齋 (곡강재)	북구 흥해읍 곡강3리		海州人 吳永孫의 墓閣 (해주인 오영손의 묘각)
遠思齋 (원사재)	북구 흥해읍 금장리		濟州高氏 墓亨之所 (제주고씨 묘형지소)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履霜齋 (이상재)	부구 흥해읍 덕성리		李濬 追慕 (이준 추모)
龜山齋 (귀산재)	남구 장기면 산서리		慶州人 崔國元 追慕 (경주인 최국원 추모)
巖齋 (암재)	남구 장기면 창지리		昌寧人 李運基 追慕 (창영인 이운기 추모)
富雲齋 (부운재)	북구 기계면 미현리		新羅阿滄 劉三宰墓所 齋舍 (신라아찬 유삼재묘소제사)
鳳岡齋 (봉강재)	북구 기계면 봉계리		尹辛達 墓所 管理 (윤신달 묘소 관리)
禾峯齋 (화봉재)	북구 기계면 화봉리		辛夢森의 墓齋處 (신몽삼의 묘재처)
永慕齋 (영모재)	북구 기계면 문성리		中樞府使 洪秉採居處地 (중추부사 홍병채거처지)
玉洞齋 (옥동재)	북구 기계면 미현리		李末全 墓齋處 (이말동 묘재처)
講義齋 (강의재)	북구 기북면 오덕리	1795년(정조19)	驪州李氏 門中建物 (경주이씨 문중건물)
達田齋 (달전재)	남구 영일읍 달전리	1402년 추정 (태종 2년)	李彦迪 墓所守護祭堂 (이연적 묘소수호제당)
上達齋 (상달재)	남구 영일읍 달전리		孫襄敏 墓所管理 (손양민 묘소관리)
下學齋 (하학재)	남구 영일읍 달전리		孫景節 墓所管理 (손경절 묘소관리)
九龍齋 (구룡재)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密陽人 朴晞 追慕 (밀양인 박희 추모)
永恩齋 (영은재)	북구 죽장면 정자리		權省齊 墓所管理 (권성제 묘소관리)
竹林齋 (죽림재)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安往來 居處地 (안왕래 거처지)
南城齋 (남성재)	남구 대송면 남성리	1939년	迎日鄭氏 始祖 鄭襲明 齋室 (영일정씨시조 정습명제실)
極慕齋 (극모재)	남구 대송면 남성리		李貞久 追慕 (이정구 추모)
悅樂齋 (열락재)	남구 대송면 남성리		驪洲人 李能撲 居處地 (여주인이능박 거처지)
三靑齋 (삼청재)	북구 청하면 청계리		淸安李氏 墓所 齋舍 (청안이씨 묘소 제사)
大峯齋 (대잠재)	남구 대잠동		向日齊 權公 墓所 齋舍 (향일제 권공 묘소 제사)
龍山齋 (용산재)	남구 장기면 방산리		金海 許公 追慕 (김해 허공 추모)
東山齋 (동산재)	남구 장기면 방산리		徐方慶외 2人 追慕 (서방경외 2인 추모)
山水齋 (산수재)	남구 장기면 방산리		琴披 許焯 追慕 (금피 허작 추모)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石圃齋 (석포재)	남구 장기면 방산리		石圃 金敎永 先祖 追慕 (석포 김교영 선조 추모)
尙義齋 (상의재)	남구 장기면 마현리		永川人 李訥 追慕 (영천인 이눌 추모)
三樂樓 (삼락루)	북구 기계면 계전리	1946년	孫星大외 2人 追慕
明倫堂 (명륜당)	북구 흥해읍 옥성1리		1989년 복원
國師堂 (국사당)	북구 흥해읍 학천1리		國師 裴千熙 祠堂 (국사 배천희 사당)
老痴堂 (노치당)	남구 장기면 방산리		皇甫集 建立 (황보집 건립)
如心堂 (여심당)	북구 신광면 죽성리	1965년	延安車氏 剛烈 影幀奉安 (연안차씨 강열 영정봉안)
萬活堂 (만활당)	북구 죽장면 입암리		旅軒 張顯光 居處地 (여헌 장현광 거처지)
永慕堂 (영모당)	북구 죽장면 입암리		東峯 權公 追慕 (동봉 권공 추모)
日躋堂 (일제당)	북구 죽장면 입암리	1600년(선조33년)	1907년 일본군 방화 1914년 복원
三願堂 (삼원당)	북구 기계면 현내리		李挺善 居處地 (이연선 거처지)

10) 묘·각·사(廟·閣·祠)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彈琴齋張孝子廟 (탄금재장효자묘)	북구신광면 마북리	조선	張允慶(장윤경)의 舍廊(사랑)
金士敏旌孝閣 (김사민정효각)	남구 장기면 입중리	1898년	金海人 金士敏의 孝誠 追慕 (김해인 김사민의 효성 추모)
崔學振 旌孝閣 (최학진 정효각)	남구 장기면 산서리	1927년	月城人 崔學振의 孝誠 追慕 월성인 최학진의 효성 추모)
張仁鄴旌孝閣 (장인풍정효각)	남구 장기면 양포리	1927년	仁同人 張仁鄴의 孝誠 追慕 (인동인 장인풍의 효성 추모)
三孝閣 (삼효각)	남구 장기면 금곡리	1810년 (순조 10년)	許琦 外 2人 孝誠 追慕 (허기 외 2인 효성 추모)
襄斗汝旌孝閣 (배두여정효각)	북구 흥해읍 남성3리	1935년	興海人 襄斗汝 孝誠 追慕 (흥해인 배두여 효성 추모)
河永湜善孝閣 (하영석선효각)	남구 구룡포읍 구평	1884년 (고종21년)	晋州人 河永湜 孝誠 追慕 (진주인 하영석 효상 추모)
金時相旌孝閣 (김시상정효각)	남구 장기면 산서리	1747년 (영조 23)	慶州人 金時相 孝誠 追慕 (경주인 김시상 효성 추모)
朴守存孝子閣 (박수존효자각)	북구 환호동 산40-1	1926년 건립 1987년 중건	朴守存(1838-1912)孝誠 追慕 (박수존 효성 추모)
金貴連孝烈閣 (김귀연효열각)	남구 오천읍 세계2리	1977년	金貴連 孝誠 追慕 (김귀연 효성 추모)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裋泰鳳旌孝閣 (배태봉정효각)	남구 지곡동 14번지	1897년 건립 1994년 신축	裋泰鳳 外 2人 孝誠 追慕 (배태봉 외 2인 효성 추모)
淸德祠 (청덕사)	북구 흥해읍 남성1리		金永綬, 兪應煥 郡守의 追慕 (김영수, 유응환 군수의 추모)
鶴林祠 (학림사)	북구 흥해읍 학천 1리	1855년 (철종6년)	曲江人 崔天翼 追慕 (곡강인 최천익 추모)
尙德祠 (상덕사)	북구 청하면 유계리	1776년 (정조 1년)	坡平人 尹百胃 追慕 (파평인 윤백위 추모)
竹林祠 (죽림사)	북구 청하면 육계리	1797년 (정조 2년)	節制使 坡平 尹公 追慕
星岡書祠 (성강서사)	북구 기계면 화대리	1851년 건립 1965년 복원	齋興君 高彦佰 追慕 (재흥군 고언백 추모)
德林祠 (덕림사)	북구 용흥동	1848년	尤庵 宋時烈 追慕 (우암 송시열 추모)

### 11) 사찰·사지·암(寺刹·寺址·庵)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寶鏡寺 (보경사)	북구 송라면 중산리	603년 (진평왕 25년)	현존 건물 숙종3년(1677)중건
淸魚寺 (오어사)	남구 오천읍 향사리	진평왕조 (579-631)	영조 17년(1741) 보수함
法廣寺 法廣寺址 (법광사지)	북구 신광면 상읍리	진평왕조	1930년 신축
泉谷寺 泉谷寺 址 (천곡사지)	북구 흥해읍 학천1리	선덕왕조	고려 충해왕때 복원 6.25전쟁 중 소실 후 신축
古石寺 고석사	남구 장기면 방산리	선덕왕조	藥師如來坐佛像 있음 (약사여래좌불상)
海蓬寺 海蓬寺址 (해봉사지)	남구 대보면 강사리	선덕왕 5년 (636)	조선 명종조에 중건되어 철종 말기에 소실됐다. 1972년 신축
石南寺址 (석남사지)	남구 장기면 방산1리	신라	南坡大師碑(1818)있음 (남파대사비)
白蓮寺址 (백련사지)	북구 흥해읍 매산리	신라	임란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
端雲菴址 (단운암지)	북구 흥해읍 학천리	신라	泉谷寺 부속건물 6.25때 소실 (천곡사)
擎日菴 (경일암)	북구 흥해읍 학천1리		천곡사 경내 부속사원. 6.25 때 소실
亞龍寺址 (아룡사지)	북구 송라면 대전리	신라	임란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
盤龍菴址 (반룡암지)	북구 송라면 화진리	신라	임란전 붕괴
至精菴址 (지정암지)	북구 송라면 대전리		임란전 왜병의 방화로 소실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摩頭寺址 (마두사지)	북구 송라면 대전리		
廣興寺址 (광흥사지)	북구 송라면 중산리		清河官衙의 客舍로 移建 (청하관아의 객사로 이건)
省法寺址 (성법사지)	북구 청하면 유계리		임란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
阿芳寺址 (아방사지)	북구 청하면 서정리		임란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
塔山寺址 (탑산사지)	북구 송라면 중산리(탑산골)		
安心寺址 (안심사지)	북구 청하면 명안리		임란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
龍山寺址 (용산사지)	북구 청하면 소동리		
德仁寺址 (덕인사지)	북구 기계면		
鎮氣寺址 (진기사지)	북구 기계면 봉계리		임란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
安國寺址 (안국사지)	북구 기계면 남계리		일본군의 방화로 소실 (1910년)
布仁寺址 (포인사지)	북구 기계면 서사기지		
弘佛寺址 (홍불사지)	남구 동해면 중산리		
鶴巢菴 (학소암)	남구기계면 계전리	미상	慶州人 李揚善 修道處 (경주인 이양선 수도처)
明月菴 (명월암)	남구 대보면 강사리	신라 선덕왕 5년	軍馬飼育을 기원하던 사찰 (군마사육)
浮雲菴址 (부운암지)	북구 기계면 당곡리		
玉女菴址 (옥여암지)	북구 죽장면 하옥리		
成尼菴址 (성니암지)	남구 오천읍 문충리		임란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
成道菴址 (성도암지)	북구 송라면 상송리		임란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
船岩寺 (선암사)	남구 동해면 공당리	1930년대	
玉蓮寺 (옥련사)	남구 연일읍 중명리	1920년대	大王殿에 金傳大王 父子靈像(부자영상)이 있음. 冕山(형산) 위에 있음.
臨墟寺 (임허사)	북구 흥해읍 옥성1리	1910년대	흥해 향교산에 있다.
夢雲寺 (몽운사)	남구 동해면 금광리	1920년대	법화종
大成寺 (대성사)	북구 기계면 화봉리	1910년대	조계종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비 고
舞鶴寺 (무학사)	북구 기계면 문성리	1930년대	조계종
文殊寺 (문수사)	북구 송라면 중산리	1943년대	
黃芳寺 (황방사)	북구 청하면 유계리	1945년대	
白蓮寺 (백련사)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53년	
圓覺寺 (원각사)	북구 청하면 미남리	1956년	
龍珠寺 (용주사)	북구 흥해읍 용천1리	1945년이전	용천리(굴산)에 있다.
龍華寺 (용화사)	북구 흥해읍 곡강리	1945년이전	법화종
法性寺 (법성사)	북구 청하면 유계리	1940년대	법화종

## 12) 고전적(古戰跡)

명 칭	소 재 지	비 고
兄山江口戰地 (형산강구전지)	남구연일읍	고려 우왕3년(1377) 경상도 도원수 우인언이 왜적을 대파
獨山戰地 (독산전지)	북구 신광면 상정리	신라 내물왕 38년(393), 실성왕 4년(405년) 눌지왕 28년(444년) 왜구 격퇴지
去陣嶺 (거진령)	북구 청하면 청계 2리	回鶴堤(회학제) 주변. 고구려군이 패전후 도주로
陣燈谷 (진등곡)	북구 청하면 청계 2리	回鶴堤(회학제) 주변. 고구려군. 집결지 야영 불빛이 10리에 걸쳐 있었다 함
理弓墓 (이궁묘)	북구 청하면 청계 2리	回鶴堤(회학제) 주변. 고구려군이 패전 후 활을 묻은 곳
斧峴 (부현)	북구 청하면 청계 2리	고구려군 주둔지 말골, 도끼재라 함
弓谷 (궁곡)	북구 청하면 청계 2리	新羅軍 戰勝地(신라군 전승지). 활골, 花郎谷(화랑곡)으로 불림
禮待丘 (예대구)	북구 청하면 청계 2리	고구려 장수가 신라에 항복하고 예대를 올린곳 에두들로 불림
龍臥燈谷 (용인등곡)	북구 청하면 청계 2리	신라군의 주둔지. 용잠이 등골 이라 함
花山戰地 (화산전지)	북구 송라면 화전 3리	임진 왜란때 전적지
山南義陣 立岩擊戰地 (산남의진 입암격전지)	북구 죽장면 입암리	山南義陣 鄭鎔基 大將 戰死(1907.9.1) (산남의진 정용기 대장 전사)
浦項地區 學徒兵 戰鬪戰跡地 (포항지구 학도병 전투전적지)	포항시 학산동 (포항여고 교정)	육군 3사단 휘하의 학도병 71명이 1950년 8월 11일 전투에서 58명 전사
兄山江 防禦 戰鬪戰跡地 (형산강 방어 전투전적지)	북구 상도동 (형산강 주변)	국군 3사단이 포항지역 방어를 위해 1950년 9월 6일에서 13일까지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전개된 전투

13) 석조유적(石造遺蹟)

명 칭	수 량	소 재 지	비 고
寶鏡寺 浮屠群 (보경사 부도군)	14기	북구 송라면 증산리	보경사 서운암
泉谷寺 浮屠群 (천곡사 부도군)	8기	북구 흥해읍 학천리	천곡사 경내
吾魚寺 浮屠群 (오어사 부도군)	9기	남구 오천읍 향사리	오어사 입구
古石寺 石佛坐像 (고석사 석불좌상)	1기	남구 장기면 방산리	고석사내
法廣寺 釋迦佛舍利塔 (법광사 석가불사리탑)	1기	북구 신광면 상읍리	법광사지 내
法廣寺 蓮花石佛座臺 (법광사 연화석불좌대)	1기	북구 신광면 상읍리	법광사지 내
法廣寺 雙頭龜趺 (법광사 쌍두귀부)	1기	북구 신광면 상읍리	법광사지 내
法廣寺 幢竿支柱 (법광사 당간지주)	1기	북구 신광면 상읍리	법광사지 내

14) 비(碑)

명 칭	소 재 지
忠婢甲蓮之碑 (충비갑연지비)	흥해읍 영일군민속박물관 내
縣監元禹常淸德善政碑 (현감원우상청덕선정비)	북구 양학동 구 도로변
재생(再生) 이명석선생 문화공덕비	북구 덕수동 산 4-3
通洋浦水軍僉使鎮營記念碑 (통양포수군첨사진영기념비)	북구 덕수동 포항문화원
浦項開港指定紀念碑(1963년) (포항개항지정기념비)	구 포항시청
觀察使尹相國 滋承永世不忘碑 (관찰사윤상국 자승영세불망비)	북구 양학동 구 도로변
節婦曲江崔道興妻永陽李氏之閭 (절부곡강최도흥처영양이씨지려)	북구 흥해읍 마산리
泉谷寺事蹟碑 (천곡사사적비)	북구 흥해읍 학천리 천곡사 경내
忠婢順良殉節之淵碑 (충비순양순절지연비)	북구 흥해읍 흥안리 곡강절벽
養老情友紀念不忘之碑 (양로정우기념불망지비 )	북구 흥해읍 흥안리
韓末義兵 抗倭血戰記念碑(1967년) (한말의병 항왜혈전기념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趙公義完淸德碑 (군수조공희완청덕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명 칭	소 재 지
郡守閔公致書吏後廳矯揉碑 (군수민공치서리후청교구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 ○公愛民碑 (군수 ○공애민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興海郡守朴公齊範惠政碑 (흥해군수박공제범혜정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池公弘寬淸德善政碑 (군수지공홍관청덕선정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權公虎○愛民善政碑 (군수권공호○애민선정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洪公鎬淸德仁政碑 (군수홍공호청덕인정비 )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柳公丞魯淸德不忘碑 (군수유공승노청덕불망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李公愛民碑 (군수이공애민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行郡守南公萬里海弊掾善政碑 (행군수남공만리해폐구선정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觀察使金相國世鎬善政碑 ( 관찰사김상국세호선정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尹公滋翊善政去思碑 (군수윤공자익선정거사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觀察使李相公箕鎮去思碑 (관찰사이상공기진거사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觀察使金相公○○永世不忘碑 (관찰사김상공○○영세불망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金公熙國淸德善政碑 (군수김공희국청덕선정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郡守權公鼓淸德善政碑 (군수권공고청덕선정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觀察使李相國根弼淸德不忘碑 (관찰사이상국근필청덕불망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行郡守池公弘寬海弊矯林善政碑 (행군수지공홍관해폐교림선정비)	북구 흥해 성내리 39-8(영일민속박물관 내)
行郡守柳公丞魯淸德不忘碑 (군수유공승노청덕불망비)	북구 흥해읍 남성리 勤武亭(권무정) 내
郡守權公顯吏廳貿易革罷碑 (군수권공의리청무역혁파비)	북구 흥해읍 남성리 勤武亭(권무정) 내
郡守俞公膺煥善政去思碑 (군수유공응환선정거사비)	북구 흥해읍 남성리 勤武亭(권무정) 내
興海九提紀積碑 (흥해구제기적비)	북구 흥해읍 남성리 勤武亭(권무정) 내
郡守李公應權善政碑 (군수이공응권선정비)	북구 흥해읍 남성리 勤武亭(권무정) 내
觀察使李相國紀淵善政碑 (관찰사이상국기연선정비)	북구 흥해읍 남성리 勤武亭(권무정) 내

명 칭	소 재 지
法廣寺釋迦佛舍利塔碑 (법광사석가불사리탑비)	북구 신광면 상읍리 법광사경내
縣監趙公元植淸德碑 (현감조공원식청덕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면사무소 내
縣監李公純謙永世不忘碑 (현감이공순겸영세불망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면사무소 내
縣監閔侯致憲施惠不忘碑 (현감민후치헌시혜불망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면사무소 내
縣監李公翼榮法思碑 (현감이공익영법사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면사무소 내
縣監李公洧淸德善政碑 (현감이공성청덕선정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면사무소 내
郡守李公寅競施惠碑 (군수이공인경시혜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면사무소 내
縣監李公洧淸德愛民善政碑 (현감이공성청덕애민선정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면사무소 내
縣監金公德鵬善政碑 (현감김공덕봉선정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면사무소 내
縣監盧侯世煥興學碑 (현감노후세환흥학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청하향교 내
縣監盧侯世煥淸德碑 (현감노후세환청덕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청하향교 내
○○○練武亭碑 (○○○연무정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청하향교 내
松岩迎日鄭氏鳳鎔公追念碑 ( 송암영일정씨봉용공추념비)	북구 청하면 덕성리 청하향교
嘉善大夫五衛將李公東信永世不忘碑 (가선대부오위장이공동신영세불망비)	북구 청하면 서정리
成均館進士金海金公墓壇碑 (성균관진사김해김공묘단비)	북구 청하면 서정리
成均館進士竹齊金海金公墓壇碑 (성균관진사죽제김해김공묘단비)	북구 청하면 서정리
將仕郎司勇苞山郭公時柱施恩碑 (장사낭사용포산곽공시주시은비)	북구 청하면 고희리
金海金公斗洙功績碑 (김해김공두수공적비)	북구 청하면 고희리
尹洛忠孝碑 (윤락춘효비)	북구 청하면 서정리
圓覺祖師碑 (원각조사비)	북구 송라면 조사리
圓眞國師事蹟碑 (원진국사사적비)	북구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내
鰲岩堂大禪師碑 (오암당대선사비)	북구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내
禪教正東峯堂大禪師誨寬碑 (선교정동봉당대선사회관비)	북구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내

명 칭	소 재 지
雪山堂壯旭禪師功德碑 (설산당장욱선사공덕비)	북구 송라면 증산리 보경사 내
己未三一獨立義舉記念碑 (기미삼일독립의거기념비)	북구 송라면 증산리 보경사 내
郭主事漢喆頌德碑 (곽주사한철송덕비)	북구 송라면 광천리
主事玄風郭公漢喆頌德碑 (주사현풍곽공한철송덕비)	북구 송라면 광천리
三一義舉記念碑 (삼일의거기념비)	북구 송라면 대전리
淸風金氏頌德碑 (청풍김씨송덕비)	북구 송라면 하송리
迎日郡反共英靈碑 (영일군반공영령비)	북구 송라면 지경리
朴正熙 大統領閣下 視察記念碑 (박정희 대통령각하 시찰기념비)	북구기계면 문성리
新羅阿浪兪公遺墟碑 (신라아찬유공유허비)	북구기계면 문성리
府尹閔相公泳稷善政碑 (부윤민상공영직선정비)	북구기계면 문성리
府尹趙相公明鼎永世不忘碑 (부윤조상공명정영세불망비)	북구기계면 문성리
鳳岡書院遺墟碑 (봉강서원유허비)	북구 기계면 봉계리
鳳岡書院神道碑 (봉강서원신도비)	북구 기계면 봉계리
孝婦卞林洪氏之碑 (효부부림홍씨지비)	북구 기계면 화대리
靑松沈氏公希文永世不忘碑 (청송심씨공희문영세불망비)	북구 죽장면 봉계리
山南義陣發祥記念碑 (산남의진발상기념비)	북구 입암리 죽장중학교 뒤
府尹兪相公章煥愛民善政碑 (부윤유상공장환애민선정비)	북구 죽장면 현내리
府尹閔相公致憲永世不忘碑 (부윤민상공치헌영세불망비)	북구 죽장면 현내리
府尹趙相公永世不忘碑 (부윤조상공영세불망비)	북구 죽장면 현내리
府尹權相公萬古不忘碑 (부윤권상공만고불망비)	북구 죽장면 현내리
縣監南公順元善政碑 (현감남공순원선정비)	남구 연일읍 중명2리
縣監趙公東勳復市善政碑 (현감조공동훈복시선정비)	남구 연일읍 중명2리
縣監李公熙稷淸德善政碑 (현감이공희적청덕선정비)	남구 연일읍 생지리

명 칭	소 재 지
縣監崔公善錫清德善政碑 (현감최공선석청덕선정비)	남구 연일읍 생지리
縣監沈能勳永世不忘碑 (현감심능훈영세불망비)	남구 연일읍 생지리
縣監閔公琬清德碑 (현감민공완청덕비)	남구 연일읍 생지리
縣監金公貞根永世不忘碑 (현감김공정근영세불망비)	남구 연일읍 생지리
觀察使徐相公熹淳永世不忘碑 (관찰사서상공희순영세불망비 )	남구 연일읍 생지리
觀察使鄭相公基善永世不忘碑 (관찰사정상공기선영세불망비)	남구 연일읍 생지리
縣監鄭公澤源清德善政碑 (현감정공택원청덕선정비)	남구 연일읍 생지리
左商隊都接長金公以亨有功碑 (좌상대도접장김공이형유공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圃隱先生遺墟碑 (포은선생유허비)	남구 오천읍 구정리 유허비각내
縣監李侯長煜永思碑 (현감이후장욱영사비)	남구 오천읍 세계리
田禧孝子碑 (전희효자비)	남구 효자동 효자초등 교내
高麗樞密院知奏事榮陽公鄭先生墓壇碑 (고려추밀원지진사영양공정선생묘단비)	남구 대송면 남성리
縣監申侯城愛民善政碑 (현감신후성애민선정비)	남구 대송면 남성리
縣監李公追思碑 (현감이공추사비)	남구 대송면 남성리
縣監吳公去思碑 (현감오공거사비)	남구 대송면 남성리
縣監安公練石去思碑 (현감안공연석거사비)	남구 대송면 남성리
監牧官閔公致億永世不忘碑 (감목관민공치억영세불망비)	남구 동해면 흥환리
南坡大師碑 (남파대사비)	남구 장기면 방산리
縣監朴侯萬淳尊民善政碑 (현감박후만형존민선정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縣監李侯勉翁清德愛民善政碑 (현감이후면흠청덕애민선정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縣監權侯載東去思碑 (현감권후재동거사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縣監成侯華鎭去思碑 (현감성후화진거사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觀察使洪公祐吉永世不忘碑 (관찰사홍공우길영세불망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명 칭	소 재 지
觀察使徐相公嘉淳永世不忘碑 (관찰사서상공가순영세불망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斥和碑 (척화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縣監崔公聲遠永世不忘碑 (현감최공성원영세불망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縣監李公周赫永世不忘碑 (현감이공주혁영세불망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縣監朴侯宗撤尊民善政碑 (현감박후종첩존민선정비)	남구 장기면 읍내리 면사무소 내
郡守鄭侯崙永愛民善政碑 (군수정후운영애민선정비)	남구 장기면 정천리
土人朴春茂妻金海金氏旌烈碑 (토인박춘무처김해김씨정열비)	남구 장기면 대곡리
聖校遺墟將任郎訓導李公使蹟碑 (성교유허장임랑훈도이공사적비)	남구 장기면 정천리
岩齊李公運基遺墟碑 (암제이공운기유허비)	남구 장기면 신계리
通政大夫昌寧李運基上狀鐫○碑 (통정대부창녕이운기상복견○비)	남구 장기면 신계리
忠勳都事德溪林公遺墟碑 (충훈도사덕계림공유허비)	남구 장기면 임중리
蘆州金先生遺墟碑 (로주김선생유허비)	남구 장기면 대진리
鄭益軫井坊堤善監永思碑 (정익진정방제선감영사비 )	남구 장기면 정천리
領議政忠定公 芝峰先生 神道碑 (영의정충정공 지봉선생신도비)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廣南書院遺墟碑 (광남서원유허비)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광남서원내
朴正熙大統領閣下巡視記念碑 (박정희대통령각하순시기념비)	북구 흥해읍 오도리
포항지구 전적비(1979년)	북구 용흥1동 산 103
전몰학도 충훈탑(1957년)	북구 용흥1동 산 103
충훈탑-포항시(1964년)	북구 덕수동 산 4-3
구룡포충훈각(1993년)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5리
學徒義勇軍 6.25 戰跡碑(1977년) (학도의용군 6.25 전적비)	북구 학산동 213-1
호국학도 충의탑(2000년)	북구 학산동 299-6(포항고등학교)
무공수훈자 전공비(2000년)	남구 대도동 포항종합운동장

명 칭	소 재 지
포항지구 전투전적비(1959년)	남구 송도동 산 1
11人の 海兵忠魂塔(1984년)	남구 오천읍 용덕 해병1사단 영내
5人の 海兵忠魂塔(1966년)	남구 오천읍 용덕 해병1사단 영내
美海兵隊 第1飛行戰團 戰歿勇士 忠靈碑(1952년) 미해병대 제1비행전단 전몰용사 충령비	남구 송도동 산 1
한·미해병 충혼탑(1989년)	북구 송라면 광천리
3.1의거 기념비(1986년)	북구 송라면 대전리 370
反共殉國靑年同志慰靈碑 (반공순국청년동지위령비)	북구 덕수동 산 4-3
忠魂塔(충혼탑)	북구 흥해읍 옥성리
浦項 中城里 新羅碑 (포항 중성리 신라비)	2009.5.11.발견. 신라 지증왕 2년(501년)제작,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 비석으로 추정
영암 황대봉 회장 송덕비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2009. 1. 15)
해병대 공로비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2009. 1. 15)

## 5. 명승지

### 1) 섬·바위

명 칭	소 재 지	비 고
萬文巖(만문암)	남구 오천읍 향사리	오어사 경내. 일명 자장암이라 함
佛巖(불암)	남구 대송면 흥계리	100여m 정도의 병풍처럼 생긴 거암. 일명 노불암(老佛巖)이라 함
龍巖(용암)	북구 신광면 호리	용연지(龍淵池) 상류의 용암산 아래 바위
鳳座巖(봉좌암)	북구 기계면 봉계리	산남의진(山南義陣)의 활동처
三僧巖(삼승암)	남구 오천읍 갈평리	바위 모양이 승려 3명이 있는 것 같음
大王巖(대왕암)	남구 오천읍 향사리	운제산(雲梯山) 정상에 있음
冠巖(관암)	남구 장기면 영암리	갯바위라고 함
浮仙巖(불선암)	남구 구룡포읍 놀태리	부선암(浮仙巖)이라 함
藪巖(괭암)	남구 구룡포읍 놀태리	박바위, 미역바위라 함
烏島(오도)	북구 흥해읍 오도리	
鵲島(작도)	북구 흥해읍 오도리	까치섬

## 2) 소·천(沼·泉)

명 칭	소 재 지	비 고
九龍沼 (구룡소)	남구 대보면 대동배리	아홉 마리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음
龍沼 (용소)	남구 장기면 대곡리	용수곡(龍水谷)에 있음
羅泉 - 伐泉 (라천) - (벌천)	북구 흥해읍 망천리	물이 줄지 않고, 여름에 찬물이 솟음
泉谷寺 石泉 (천곡사 석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신라 선덕여왕이 목욕 후 피부병을 고쳤다함

## 3) 숲(藪)

명 칭	소 재 지	비 고
露岩植樹 (노암식수)	남구 대보면 대동배리	학달비 8경중 하나
養失藪 厚洞竹林 (양실수 후동죽림)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죽림재부근의 대나무밭
觀德官松藪 (관덕관송수)	북구 청하면 미남리	청하현감 민인(閔寅)이 조성(세종9년)
下松藪 (하송수)	북구 송라면 하송리	상송리, 중송리, 하송리의 제방림
淸河西溪藪 (청하서계수)	북구 청하면 유계리	자연림 일부 남음
杞溪西藪 (기계서수)	북구 기계면 현내리	도원공(桃源公) 이말동(李末叟)이 조성
厚洞藥藪 (후동약수)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장기현의 조정에 상납할 약초재배지 약아(藥芽)라 함
淸林古縣藪 (청림고현수)	남구 청림동	
迎日新邑藪 (연일신읍수)	남구 연일읍 생지리	현감 남순원(縣監 南順元)이 조성(1866년) 고목이 현존함
達田河日藪 (달전하일수)	북구 흥해읍 학천리	하일수, 오수정이라 불림 현재 없음
七浦望齋藪 (칠포망재수)	북구 흥해읍 칠포리	망재암(望齋암)이라 불림
自明藪 (자명수)	남구 연일읍 자명리	자방골 숲으로 불림
長鬐林中藪 (장기임중수)	남구 장기면 임중리	현재 없음
大東藪 (대동수)	북구 송라면 대전리	두곡(두곡)숲이라 함
大宋亭藪 (대송정수)	남구 동촌동	포항제철 부지가 됨
鳳林藪 (봉림수)	북구 흥해읍 곡강리	현재 없음
華津藪 (화진수)	북구 송라면 화진리	현재 없음
北川藪 (북천수)	북구 흥해읍 마산리	이득강(李得江) 흥해군수가 조성
松島藪 (송도수)	남구 송도동	대내차랑(大內次郎)이 조림(1911년) 어부보안림(魚附保安林)으로 지정(1929년)

## 4) 령·형·곡·대(嶺·峴·谷·臺)

명 칭	소 재 지	비 고
六峴嶺 (육현령)	북구 신광면 반곡리 청하면 명안리	옛재(六峴)라함 신라때 동북방과 연결로
샘재 泉峴(천현)	북구 신광면 마북리 죽장면 상옥리	정상에 샘이 있음(해발 695m)
장구재 杖鼓峴(장고현)	북구 신광면 마북리 청하 명안리	고개 형태가 장구처럼 생김. (해발 585m)
白日峴 (백일현)	남구 동해면 약전리 상정리 대박골	흰날재라고 부름
不來峴 (블래현)	북구 기계면 남계리 영천 자양면 도일리	블래재, 불귀현(不歸峴)이라 함
姜哥谷 (강가곡)	남구 대송면 흥계리	임진왜란때 피난처
聖積谷 (성적고)	남구 대송면 흥계리	성승곡(聖僧谷)이라 함
下仙臺 (하선대)	남구 동해면 마산리	마산리 앞바다에 있는 반석
束草臺 (속초대)	남구 흥해읍 옥성리	풍수설에 의해 만들어진 목초지
釣鯨臺 (조경대)	북구 청하면 용두리	용두산에서 바다로 돌출된 곳
長鬻拜日臺 (장기배일대)	남구 장기면 읍내리	배일대(拜日臺) 초석이 있음
獨蘿臺 (독라대)	북구 신광면 호리	호리 동쪽의 봉우리
小蓮臺 (소연대)	남구 장기면 계원리	해변가의 암봉·대귀봉(代龜峰)이라고 함
臨墟臺 (임허대)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 향교산 정상
釣峯臺 (조봉대)	북구 흥해읍 흥안2리	북미질부성지의 봉우리
魚龍臺 (어룡대)	남구 동해면 임곡리	임곡에서 형산강 양쪽 전 백사장을 어룡사(魚龍沙), 어렁이불이라 함. 현재 없음
德美臺 (덕미대)	남구 장기면 임중리	산의 형태가 거북이 엎드려 있는 것 같음
大嶼臺 (대서대)	남구 동해면 임암리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
鍊武臺 (연무대)	북구 청하면 덕성리	현 청하초등 교정 내. 영조 26년 창건설 있음. 현재 없음
內延山溪谷 (내연산계곡)	북구 송라면 중산리	내연산에 둘러싸인 계곡 보경사와 부속 암자, 12폭포 등이 있음

## 참고문헌

-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987.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999.  
 포항시, 《포항의 문화유산》.